

농업·농촌경제 동향: 2002년 9월

2002년 10월 7일

<목 차>

I. 일반경제

II. 농업·농촌경제

III. 품목별 수급동향

IV. 지역언론 보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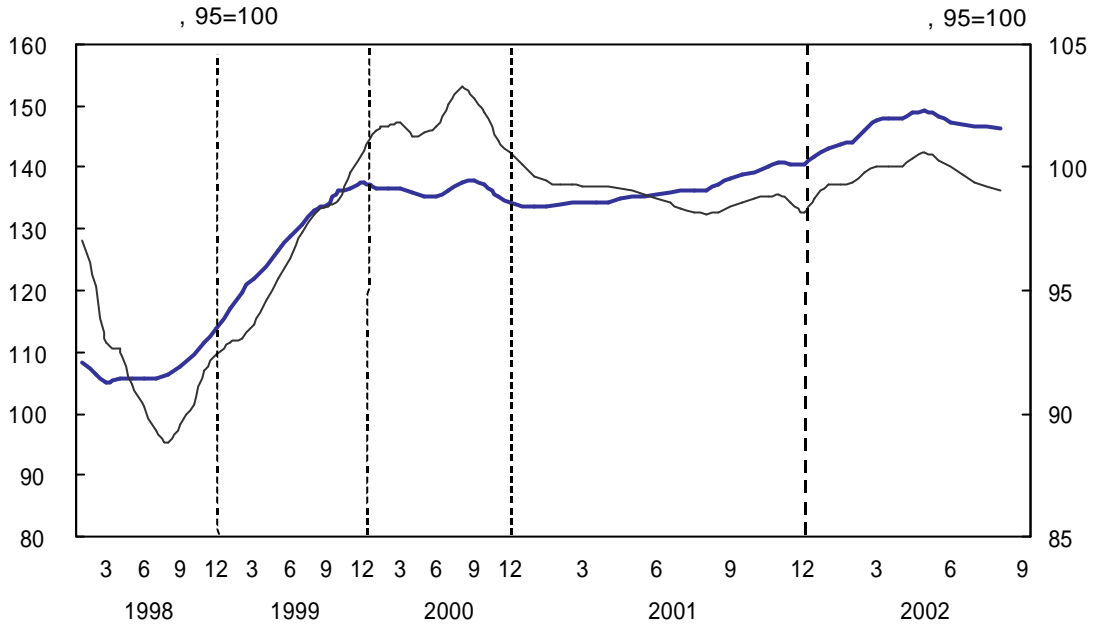
V. 이 달의 집중분석: 마늘, 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 일반 경제

1. 경기동향

<경기종합지수>



<경기종합지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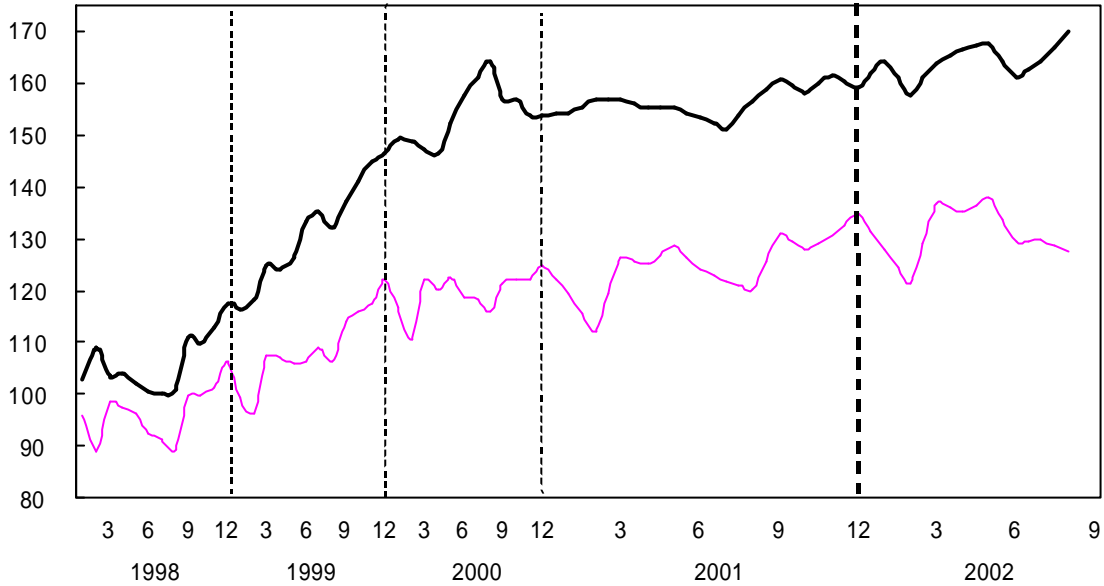
	2002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동행지수 ¹⁾	100.1	100.1	100.6	100.0	99.4	99.1
전년동월대비(%)	0.9	0.9	1.6	1.3	1.1	1.1
선행지수	147.6	148.2	149.4	147.3	146.6	146.5
전년동월대비(%)	9.8	10.1	10.5	8.5	7.7	7.4

1)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의미
 자료: 통계청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3개월 연속 하락)**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냄.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1로 전월보다 0.3p 감소함.
- **(경기 선행지수 3개월 연속 하락)** 8월 선행지수는 기계수주액, 수출신용장내도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가 감소하여 전월보다 0.1p 하락한 146.5를 기록함으로써 3개월 연속 하락.

2. 산업생산 및 소비

<산업생산 및 도소매판매지수>



<산업생산 및 도소매판매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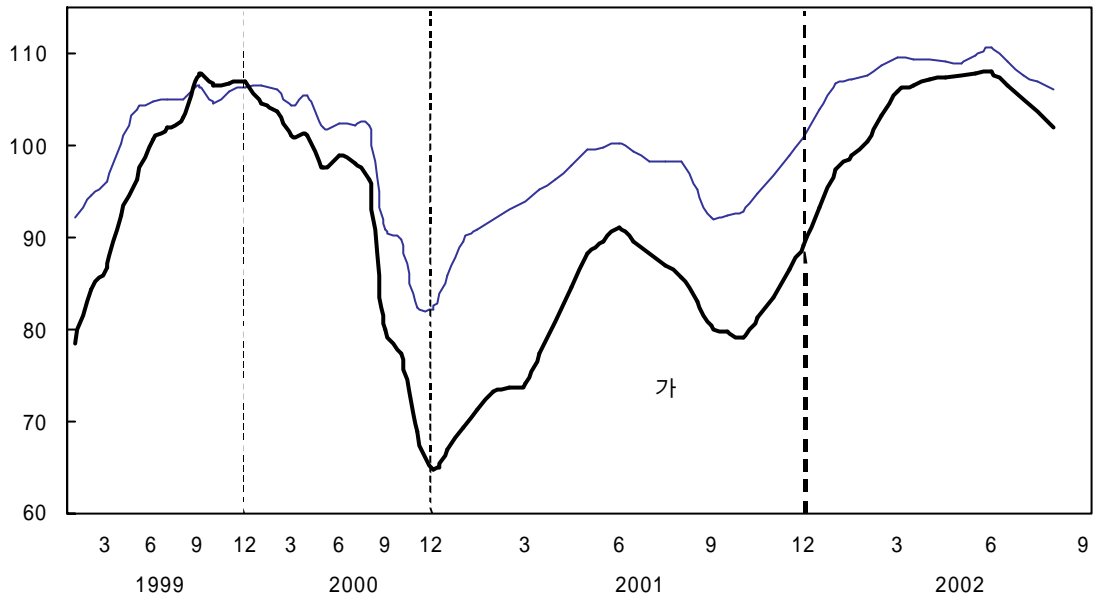
	2002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산업생산 ¹⁾	157.8	163.8	166.8	167.6	161.3	164.3	169.7
전년동월 대비(%)	0.6	4.4	7.5	7.9	5.3	8.7	8.4
도소매판매	121.2	136.8	135.0	138.1	129.3	129.7	127.4
전년동월 대비(%)	8.1	8.3	7.8	7.5	4.1	6.6	6.0

1) 계절조정치, 자료: 통계청

- **(산업생산 증가세 지속)** 8월 산업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사무회계용기계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8.4% 상승한 169.7을 기록.
- **(도소매 판매 증가세 지속)** 도소매 판매는 전 업종에서 소비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6.0% 상승한 127.4를 기록.
 - 전월대비 2.3p 감소
 - 향후 재고증가 예상되어 산업생산 불안정 전망

3. 소비심리

<소비자 기대지수 및 평가지수>



<소비자 전망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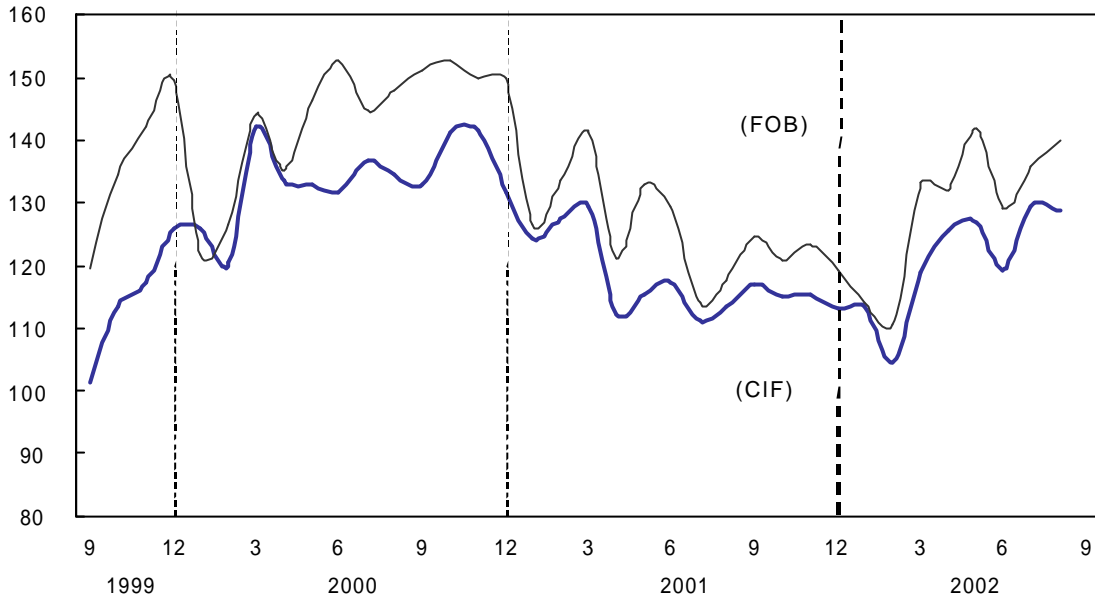
	2002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평가지수	100.5	105.9	107.2	107.6	108.1	105.2	102.1
전년동월대비(%)	37.3	42.9	32.5	21.9	18.7	19.3	19.3
기대지수	107.7	109.7	109.4	109.1	110.6	107.8	106.2
전년동월대비(%)	17.1	16.6	13.6	9.6	10.3	9.6	8.1

자료: 통계청

- **(소비자 평가지수 하락세)**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와 생활형편에 대한 평가지수 모두 전월에 비해 2개월 연속 하락. 8월 소비자 평가지수는 102.1로 전월에 비해 3.1p 하락함.
- **(소비자 기대지수 하락세)**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지수가 소폭 하락하여 소비자 기대지수는 전월대비 1.6p 하락한 106.2를 기록.

4. 수출입 및 무역수지

<수출입 및 무역수지>



<수출입 및 무역수지>

단위: 억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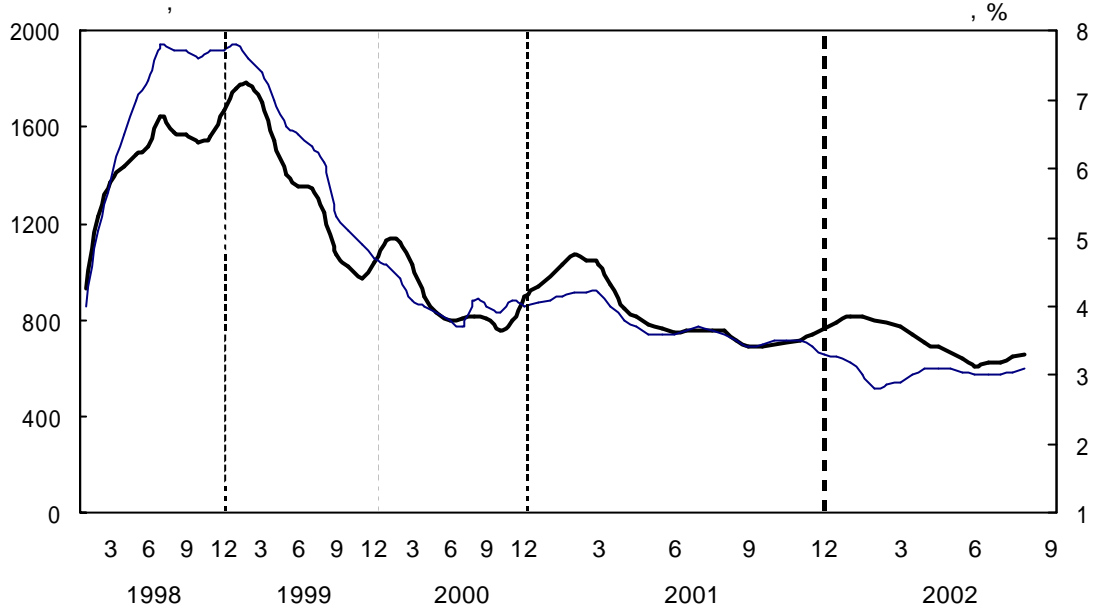
	2001년		2002년				
	연간	1~8월	5월	6월	7월	8월	1~8월
수출	1,504.4	1,016.4	141.8	129.1	135.6	139.9	1,035.0
전년동월대비증감율	△12.7	△9.2	6.6	△0.2	19.0	18.9	1.8
수입	1,411.0	950.5	127.0	119.2	129.5	128.7	967.1
전년동월대비증감율	△12.1	△10.1	9.9	1.7	16.6	13.5	1.7
무역수지	93.4	66.0	14.8	9.9	6.1	11.2	67.9

자료: 관세청

- **(8월중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큰 폭 증가)** 8월중 수출은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8.9% 증가한 139.9억 달러,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3.5% 증가한 128.7억 달러를 기록.
- **(8월중 무역수지는 11.2억 달러 흑자를 기록)** 금년 1~8월 누적 무역수지는 67.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함.

5. 고용

<실업자 및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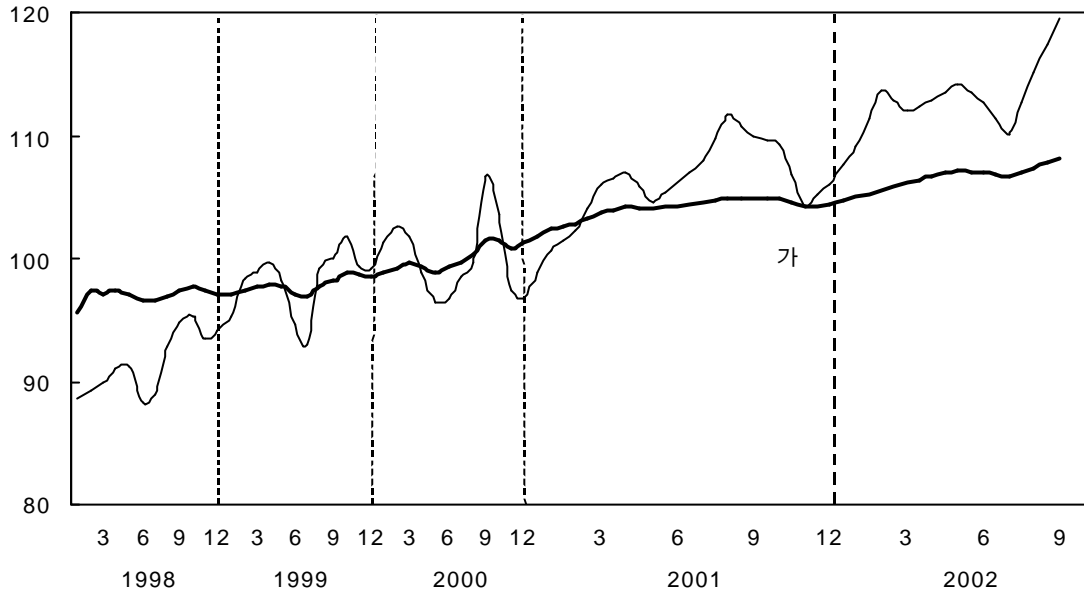
	2001년	2002년				
	연간	4월	5월	6월	7월	8월
경제 활동 인구	22,181	22,768	22,884	22,885	22,870	22,598
취업자	21,362	22,060	22,223	22,274	22,244	21,939
실업자	819	707	661	611	626	658
전년동기대비	△7.9	△16.6	△15.3	△18.0	△17.6	△12.5
실업률 (계절조정)	3.7	3.1	3.1	3.0	3.0	3.1

자료: 통계청

- **(취업자 감소, 실업자 증가)** 8월중 취업자는 전월대비 30만 9천명 감소한 2,193만 9천명, 실업자는 전월대비 3만 2천명 증가한 65만 8천명을 기록. 전월대비 실업자 증가는 잦은 비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거리 감소로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건설업 부문의 실업 증가에 기인함.
- **(계절조정 실업률은 전월에 비해 0.1%p 증가한 3.1%를 기록)** 계절조정 실업률은 농가가 0.1%p 하락한 0.8%, 비농가는 0.1%p 상승한 3.4%를 기록.

6. 물가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 및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단위: 지수(20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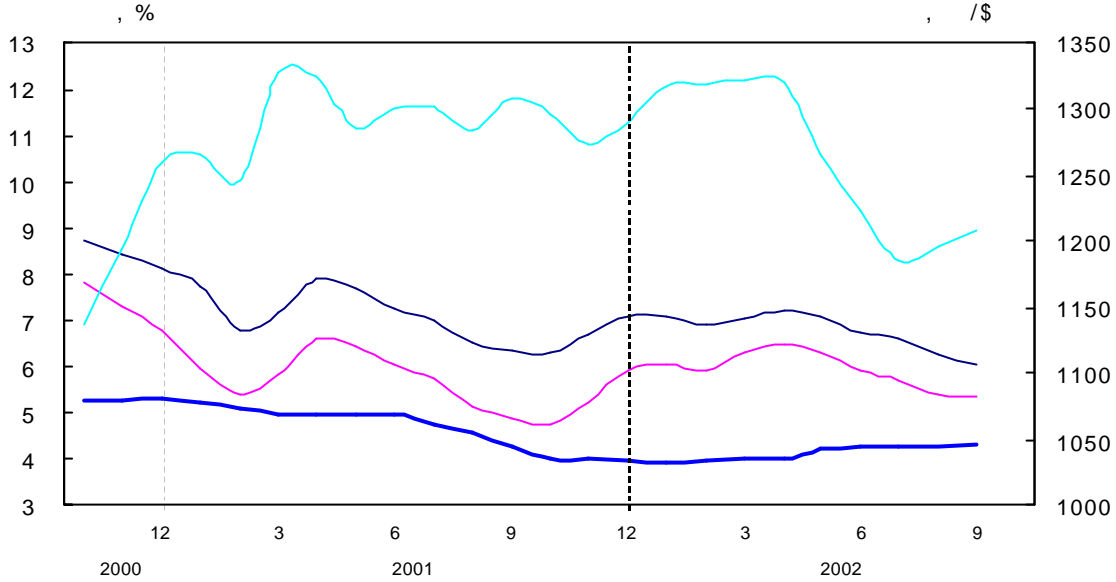
	2002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소비자물가	106.1	106.7	107.1	107.0	106.7	107.4	108.0
전년동월대비(%)	2.3	2.5	3.0	2.6	2.1	2.4	3.1
농축수산물	112.0	112.8	114.2	112.6	110.1	115.2	119.4
전년동월대비(%)	5.8	5.4	9.2	6.1	2.0	3.2	8.6

자료: 통계청

- **(9월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9월초 태풍 루사와 추석 수요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자동차특소세율 환원에 따른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 등으로 전월대비 0.6%p 상승한 108.0을 기록.
- **(농축수산물 가격 2개월 연속 큰 폭 상승)** 9월 농축수산물 가격은 태풍으로 인한 출하부진과 추석수요증가로 인해 크게 올라 2개월 연속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함.

7. 금리 및 환율

<월평균 금리>



<월평균 금리 및 환율 변동>

단위: %, 원/\$

	2002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콜금리	3.97	3.99	3.99	4.21	4.28	4.26	4.27	4.29
국고채 ¹⁾	5.92	6.30	6.48	6.30	5.93	5.70	5.38	5.37
회사채 ¹⁾	6.89	7.05	7.21	7.07	6.76	6.59	6.24	6.06
환 율	1,318.7	1,322.5	1,320.0	1,266.1	1,223.5	1,185.1	1,196.6	1,208.5

1) 3년물 기준, 회사채는 AA-기준.

자료: 한국은행

- **(콜금리 소폭 인상, 장기금리는 하향세 지속)** 5월 콜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콜금리는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는 4월 중순이후 하향 기조를 유지.
- **(9월중 원화대비 달러화 가치 소폭 상승세)** 4월 이후 급락한 원/달러 환율은 8월부터 소폭 상승세로 반전하여, 9월중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10월 5일 현재 1,232원/달러)

8. 주요 선진국 경제

□ 미 국

<미국 경제의 주요 지표>

	2002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실질 GDP ¹⁾	-	1.4	-	-	21	-	-
산업 생산 ²⁾	138.1	138.6	138.8	139.4	140.3	140.9	140.5
경기선행지수	111.9	111.9	111.6	112.3	112.1	112.0	111.8
수 출 ³⁾	773.3	783.9	803.3	810.1	821.7	832.3	-
수 입 ³⁾	1,104.5	1,109.4	1,163.1	1,187.1	1,189.2	1,177.8	-
무역수지 ³⁾	△331.2	△325.5	△359.8	△377.0	△367.5	△345.5	-
소비자 기대지수 ⁴⁾	87.2	92.7	89.1	92.7	87.9	81.0	80.6
실업률(%) ⁵⁾	5.5	5.7	6.0	5.8	5.9	5.9	5.7

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1992=100, 3) 상품과 서비스, 계절조정(억달러)

4) 1966.1=100, 5)계절조정치

자료: The Conference Board, BEA, BLS

- **(경기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감 증대)** 추가하락, 소비자 신뢰저하 등으로 경기선행지수 2개월 연속 하락. 그간 증가세를 보이던 산업생산도 8월 들어 하락. 7월 무역수지 적자는 5월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1~7월 누적 무역적자도 전년동기대비 8.7% 증가.
- **(실업률 감소, 물가 안정세)** 8월중 실업률은 전월대비 0.2%p 감소한 5.7%를 기록하여 안정세를 보였고,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도 안정세를 지속.

□ 일 본

- **(2002년 2/4분기 GDP 성장률 △0.6%)** 2/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6%를 기록하여 감소폭이 축소됨. (전분기대비로는 0.6%로 5분기만에 성장세로 반전함.)
-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 지속성 의문)** 일본경제는 수출주도에 의한 완전한 경제회복의 초기국면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내 민간수요 부진,

추가하락, 환율강세, 세계경제 회복 불투명,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경제 회복의 지속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

<일본의 주요 경가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단위: %

	2001	2002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GDP 성장률 ¹⁾	△3.0			△3.8			△0.6	
산업생산 ²⁾	91.1	91.0	92.1	92.8	93.0	96.8	96.6	96.7
수출 ³⁾	△15.7	△2.9	△4.3	△2.9	1.3	8.7	6.8	8.9
실업률	5.5	5.3	5.3	5.2	5.2	5.4	5.4	5.4

1) 전년동기대비, 실질, 2) 광공업 산업생산(1995=100), 3) 엔화표시 증감률
자료: 일본 내각부, 총무성 통계국

□ 유로(Euro)지역

<유로지역의 주요 경가지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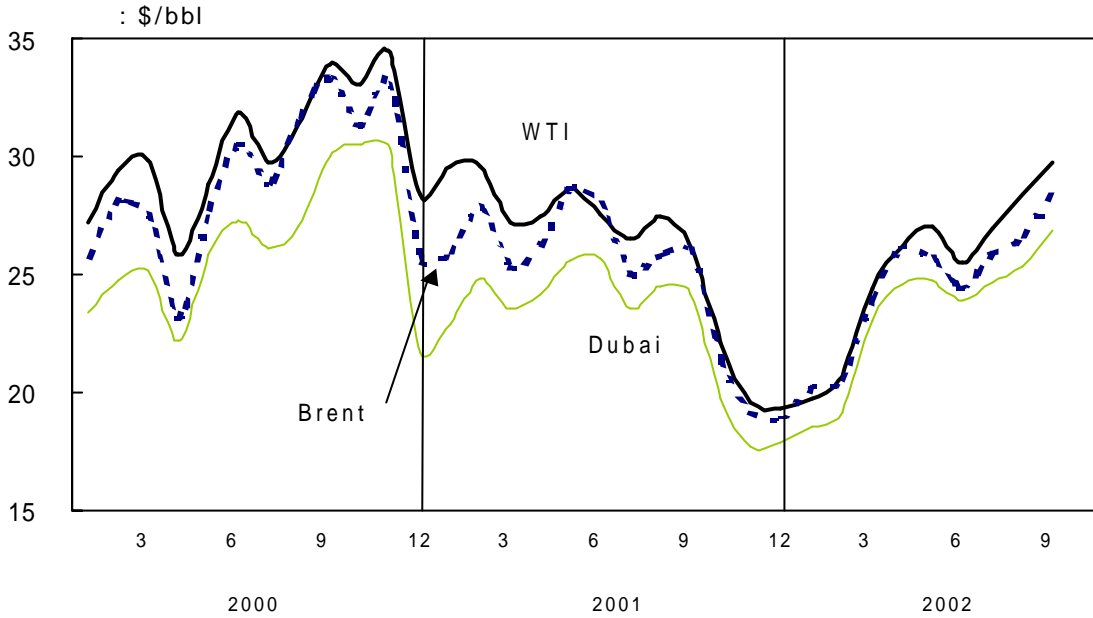
		200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유로지역	GDP 성장률 ¹⁾	-	-	0.3	-	-	0.6	-
	산업생산 ²⁾	111.8	116.1	123.8	118.0	117.4	122.6	114.4
	실업률 ³⁾	8.2	8.2	8.2	8.2	8.3	8.3	8.3
독일	산업생산	107.9	110.5	123.4	115.3	111.7	119.8	144.4
	실업률	8.1	8.0	8.0	8.0	8.2	8.3	8.3
프랑스	산업생산	116.8	117.6	122.3	118.7	117.6	122.2	109.7
	실업률	8.9	8.9	8.8	8.8	8.8	8.9	8.9

1) 전년동분기대비 성장률, 2) 근무일 조정치, 3) 계절조정치
자료: EUROSTAT

- (유로지역의 2002년 2/4분기 GDP성장률 0.6%) 총 고정투자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민간소비가 증가로 반전하고, 수출이 확대되어 2/4분기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0.6%를 기록.
-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심리 위축) 유로경제는 완만한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높은 실업률과 소비부진의 지속, 주식시장의 침체 등으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위축. 최근 IMF는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을 0.9%로 하향 조정함.

9. 국제유가

<국제유가 변동>



<최근 3개월 국제유가>

단위: \$/bbl, %

	2002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WTI	24.40 (Δ10.3)	26.22 (Δ4.3)	27.03 (Δ5.6)	25.49 (Δ7.5)	26.95 (1.9)	28.36 (3.4)	29.72 (13.4)
Brent	23.96 (Δ5.4)	26.13 (Δ0.5)	25.66 (Δ10.3)	24.43 (Δ12.6)	25.86 (3.1)	26.63 (3.1)	28.42 (9.4)
Dubai	23.01 (Δ2.0)	24.57 (1.4)	24.74 (Δ3.4)	23.95 (Δ6.8)	24.66 (4.9)	25.31 (3.2)	26.85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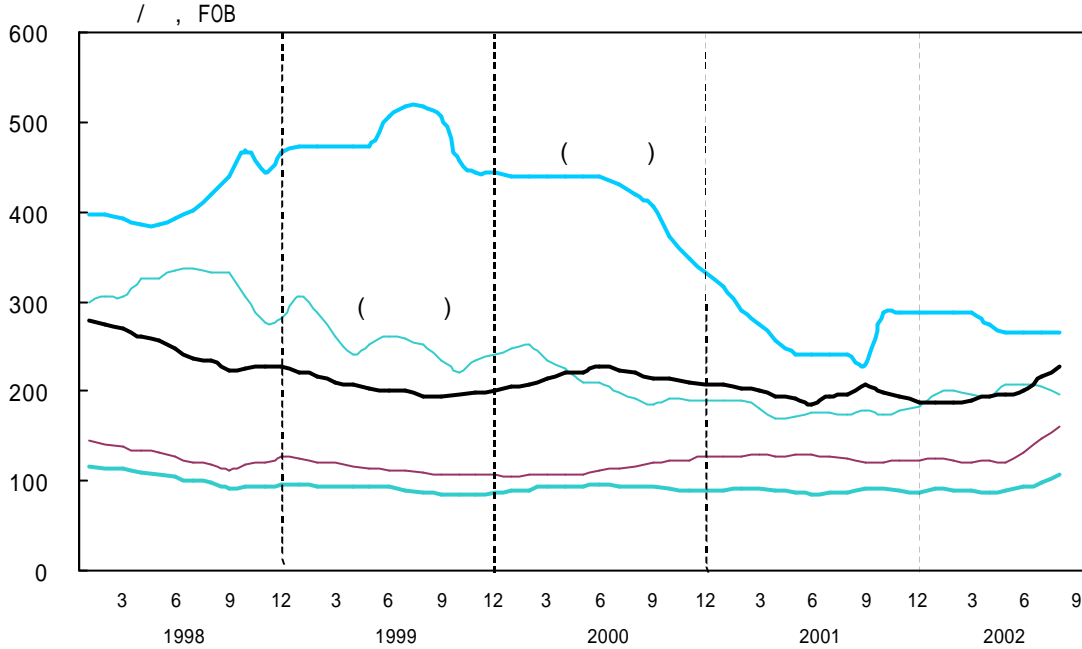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 (이라크 공격 가능성으로 국제유가 올해 들어 최고 수준 유지) 9월중 국제유가는 이라크가 국제사회에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가운데, 미국의 독자 공격 가능성 대두로 올해 들어 최고가격 수준을 유지.
- (유가 상승 요인) OPEC의 산유량 동결 발표, 계절적 요인, 미국 원유재고 감소, 현 상황을 전쟁때문이라고 보는 OPEC의 견해 등 유가 상승 요인 상존.

Ⅱ. 농업 · 농촌경제

1. 국제곡물가격

<국제곡물가격>



<국제곡물가격>

단위: \$/톤

	2000	2001				2002		
		연간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쌀(중립종)	413.6	267.1	243.0	243.0	243.0	265.0	265.0	265.0
쌀(장립종)	211.0	178.8	177.0	177.0	174.0	208.0	205.0	197.0
콩	211.8	195.8	186.3	195.2	197.0	200.0	218.0	227.0
옥수수	88.5	89.6	85.1	87.7	88.5	94.1	98.7	108.9
밀	114.1	126.8	130.6	127.7	125.5	132.0	149.3	1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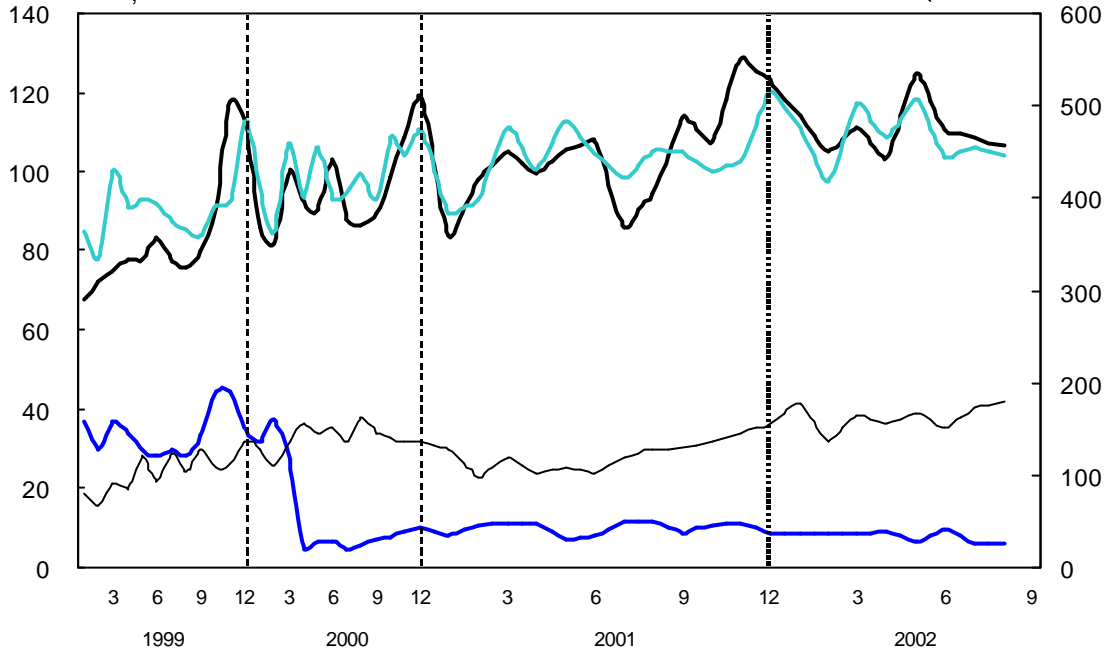
주1): 중립종 쌀은 U.S. Medium California (정곡) 1등급, 장립종 쌀은 태국산 100% Grade B(정곡), 소맥은 U.S. Gulf No.1 HRW, 옥수수는 U.S. Gulf No.2, Yellow, f.o.b, 대두는 U.S. c.i.f Rotterdam 가격임.

자료: USDA, ERS, Rice Outlook, September,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 **(8월 장립종쌀 국제가격 하락세 지속)** 8월 장립종쌀 국제가격은 대규모 인도산 수출과 태국 정부의 재고미 판매로 하락세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13.2% 상승, 중립종쌀은 전월과 유사하나 전년동기대비로는 9.1% 상승.
- **(기타곡물의 국제가격 상승세 크게 확대)** 8월 기타곡물의 국제가격은 미국 등 주산지의 이상기온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상승세 크게 확대, 전년동기대비 국제가격은 밀 28.6%, 옥수수 23.1%, 콩 15.2% 상승.

2. 농축산물 수출입

<농축산물 수출입>



<농축산물 수출입>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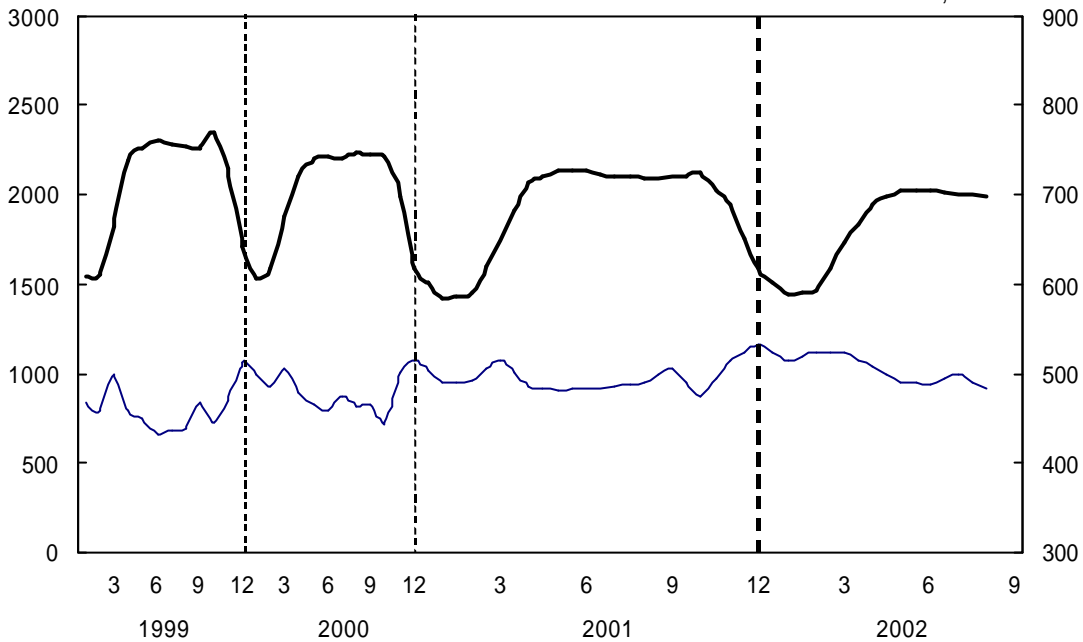
		2000년	2001년	2001년		2002년	
				8월	1~8월	8월	1~8월
수출	농산물	1,142.5	1,251.9	94.8	779.2	106.4	873.4
	축산물	156.8	117.9	11.4	78.7	5.9	62.2
	소계(A)	1,299.3	1,369.8	106.2	857.9	112.3	935.6
수입	농산물	5,100.3	5,325.3	449.2	3,491.0	445.6	3,713.8
	축산물	1,679.4	1,466.5	128.0	900.9	179.3	1,304.5
	소계(B)	6,779.6	6,791.8	577.2	4,391.9	624.9	5,018.3
순수입	B-A	5,480.3	5,422.0	471.0	3,534.0	512.6	4,082.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1~8월 농축산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9.1% 증가) 1~8월 농산물 수출은 과일류와 화훼류, 김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2.1% 증가했으나, 축산물 수출은 돼지고기 수출의 부진 등으로 21.0% 감소.
- (1~8월 농축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4.3% 증가) 1~8월 농축산물 수입은 과일류, 육류 등의 수입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4.3% 증가, 순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5.5% 증가한 40억 8,270만달러를 기록함.

3. 농림업취업자와 농외취업자

<농림업 취업자수>



<농가의 취업자 변동>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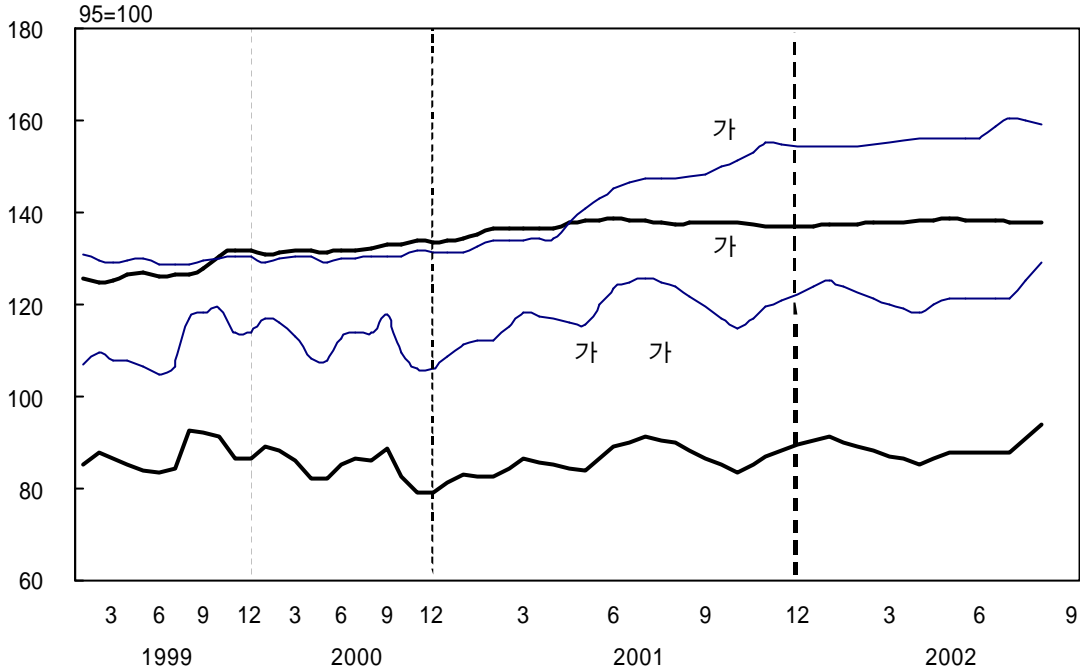
	2001				2002				
	5월	6월	7월	8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농림업취업자	2,130	2,130	2,100	2,094	1,949	2,021	2,025	2,001	1,997
전년동월대비	△3.4	△3.7	△4.7	△6.4	△5.4	△5.1	△4.9	△4.7	△4.6
농외취업자	481	483	486	489	507	490	487	500	483
전년동월대비	3.7	5.0	2.3	5.8	4.3	1.9	0.8	2.9	△1.2

자료: 통계청

- (농가농림업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지속) 8월 농가의 농림업 취업자수는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대비 0.2% 감소한 199만 7천명을 기록. 전년동월대비로는 4월 이후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약 5%의 감소율이 견지되고 있음.
- (농가농외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반전) 8월 농가의 농외취업자수는 건설·음식·숙박업 부문 취업자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2% 감소한 48만 3천명을 기록하여 감소세로 반전.

4. 농촌물가

<농촌물가>



주: 투입재가격은 농업용품(가축류 제외)가격과 농촌임료금의 가중평균치임.

<농촌물가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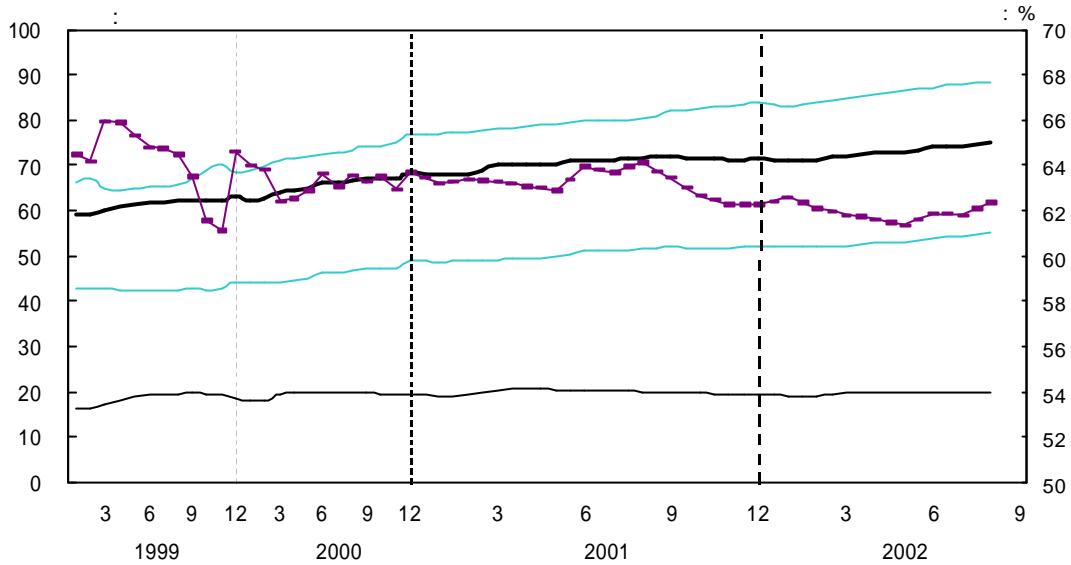
	1999	2000	2001년	2002년			
				5월	6월	7월	8월
농가판매가격지수	108.5	109.6	118.7	121.4 (4.8)	121.5 (Δ1.7)	121.4 (Δ3.6)	129.4 (4.4)
투입재가격지수	127.6	132.2	137.2	138.6 (0.2)	138.3 (Δ0.2)	138.2 (Δ0.1)	137.8 (0.3)
판매가격/투입재	87.0	84.6	86.5	87.6 (4.6)	87.8 (Δ1.5)	87.8 (Δ3.5)	93.9 (4.1)

주: ()안 숫자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농협

- **(농가판매가격 8월 들어 크게 상승)** 8월 들어 사료류 가격의 3% 하락 등 농업투입재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8월 농가판매가격은 기상악화로 인한 출하물량 감소로 청과물 가격이 상승(30.7%)하여 전월대비 8.0p 상승한 129.4를 기록.
- **(8월 농업경영조건 호전)** 8월 판매가격/투입재 비율은 전월대비 7.0% 상승하였고 전년동기대비로도 4.1% 상승하여 농업경영조건은 호전됨.

5. 농업금융

<농업금융 잔고>



<농업금융 잔고>

단위: 조원

		2001년 8월		2002년 8월		전년동월 대비(%)
		잔 고	전월차	잔 고	전월차	
대 출	상호금융	51.6	0.6	55.2	0.7	7.0
	정책자금	20.0	△0.2	19.7	△0.1	△1.5
	계	71.6	0.3	74.9	0.6	4.6
예 금	상호금융	80.4	0.3	88.5	0.4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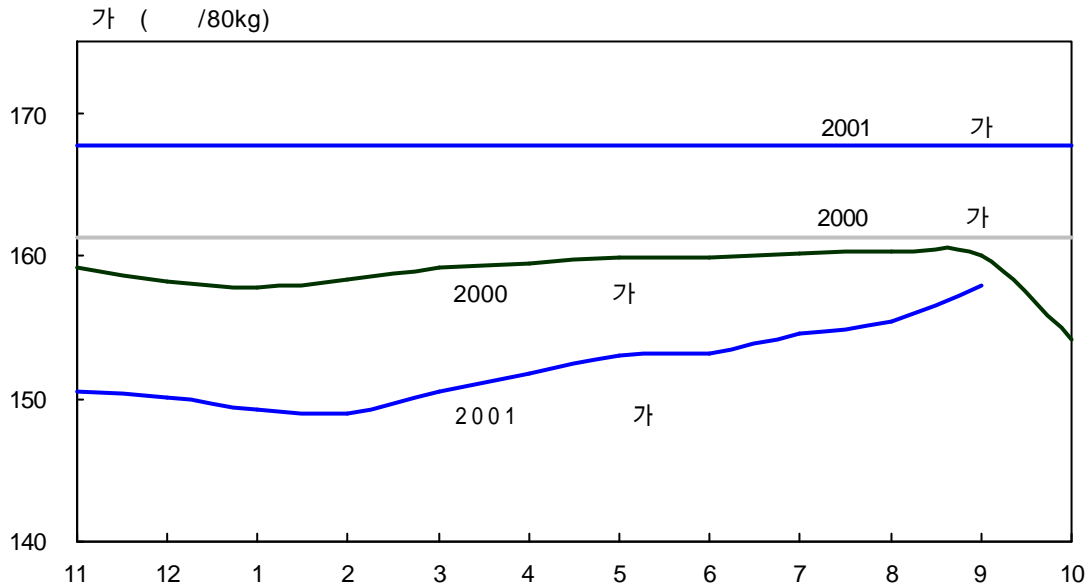
자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농업금융 총 대출액 전년동기대비 4.6% 증가)** 8월 농업금융 대출액은 상호금융이 전년동월대비 7.0% 증가했으나, 정책자금은 전월에 비해 1.5% 감소, 총 대출액은 전월보다 4.6% 증가한 74조 9천억원.
- **(상호금융 예대비율 전년동기대비 2.8% 하락)** 8월 상호금융 예금 잔고는 전월보다 4천억원 증가한 88조 5천억원, 대출은 전월대비 6천억원이 증가해 8월 예대비율은 전월대비 1.0% 상승으로 반전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2.8% 하락.

6. 쌀 수급동향과 전망

□ 쌀 가격동향

<쌀 가격>



<쌀 가격 변동>

단위: 원/80kg, %

	2001년				2002년			
	6월	7월	8월	9월	6월	7월	8월	9월 ¹⁾
산지쌀가격	159,891	160,156	160,236	160,055	153,244	154,484	155,379	157,931
전월대비	0.1	0.2	0.0	△0.1	0.2	0.8	0.6	1.6
전년대비	1.4	0.7	0.3	0.2	△4.2	△3.5	△3.0	△1.3
산지조곡가격	56,509	56,421	56,105	54,578	53,755	53,840	53,995	54,481
전월대비	0.0	△0.2	△0.6	△2.7	0.6	0.2	0.3	0.9
전년대비	△2.0	△3.4	△4.3	△4.1	△4.9	△4.6	△3.8	△0.2
산지/조곡 ²⁾	2.83	2.84	2.86	2.93	2.85	2.87	2.88	2.90

주 1) 9월 25일 가격, 2) 산지조곡가격(40kg) 대비 산지쌀가격(80kg)

자료: 농림부 식량정책과

- **(쌀 산지가격 상승세 유지)** 9월 산지 쌀 가격은 80kg당 15만 7,931원으로 전월대비 1.6% 상승함으로써 상승폭 다소 확대, 전년동기대비로는 1.3% 하락함으로써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됨.
- 9월 쌀 산지가격은 전년 수확기대비 5.2% 상승으로 금년산 벼 매취요인 다소 호전.

Ⅲ. 품목별 수급 동향

1. 채소 수급동향과 전망

가. 개황

- 8~9월의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채소류 출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9월 가격은 8월보다 크게 상승
- 10월에도 고추, 마늘, 양파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출하량 감소로 가격은 작년이나 평년보다 높을 전망
- 월동작물의 재배면적은 배추와 무를 제외한 전 품목이 작년보다 감소할 전망

<채소 도매가격 등락률 (상품 기준)¹⁾>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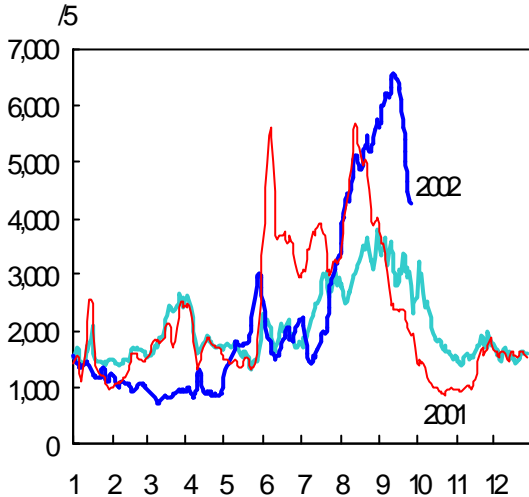
	1~8월 가격		9월 가격			10월 전망	
	작년	평년	전월 대비	작년	평년	전월 대비	작년
	동기 대비	동기 대비 ²⁾		동기 대비	동기 대비 ²⁾		동기 대비
배추	$\Delta 27$	$\Delta 11$	27	110	80	-	+
무	$\Delta 13$	14	54	105	73	-	+
고추	$\Delta 23$	0	27	$\Delta 29$	$\Delta 1$	약보합	-
마늘	41	5	4	4	$\Delta 3$	보합	보합
양파	$\Delta 22$	$\Delta 30$	8	23	14	보합	보합
대파	$\Delta 7$	$\Delta 8$	58	39	56	-	+
쪽파	11	3	44	168	63	-	+
양배추	$\Delta 27$	$\Delta 42$	65	$\Delta 19$	$\Delta 1$	보합	+
당근	$\Delta 28$	$\Delta 13$	19	$\Delta 11$	$\Delta 4$	보합	+
감자(수미)	$\Delta 15$	$\Delta 12$	4	$\Delta 14$	$\Delta 7$	+	보합

1) 가락동시장 도매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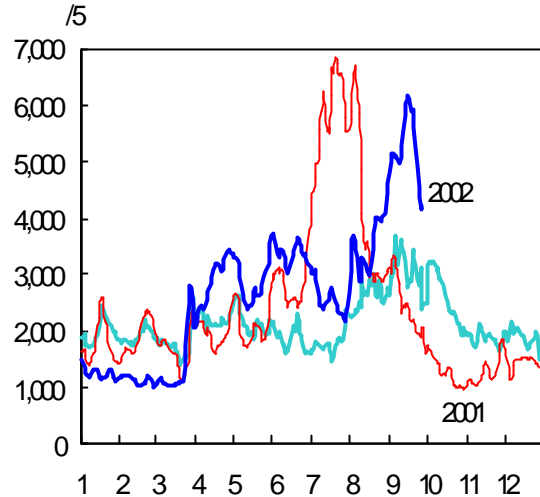
2) 평년은 1997~2001년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나. 무·배추

<배추 도매가격 (상품)>



<무 도매가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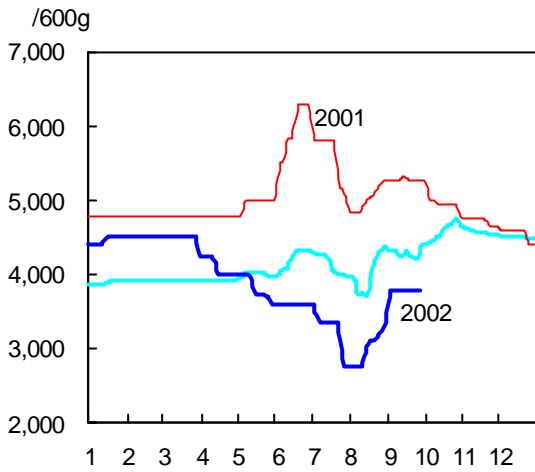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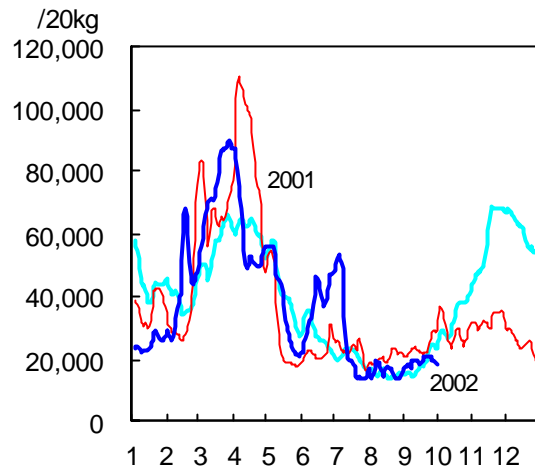
- 9월 배추·무 가격은 작년이나 평년에 비해 2배 높은 수준이었음. 이는 집중호우와 저온으로 고랭지배추·무 작황이 크게 나빠지면서 출하량이 감소한데다 도로유실 등으로 물류가 원활치 못하였고 추석으로 수요도 증가하였기 때문임.
- 10월에 출하될 배추·무 출하예상량은 작년보다 35% 내외 적을 것으로 전망됨.
- 10월 고랭지배추·무 도매가격은 가격이 크게 낮았던 작년보다 2배 높으나,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8월 상순 이후 지속된 배추·무 가격 강세는 안정될 것으로 보임.
- 김장배추·무 재배면적은 무의 적기파종 실패로 김장무는 작년보다 9%, 김장배추는 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월동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재배면적이 많았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고, 제주도 월동무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어 내년 겨울철 월동무 출하량은 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다. 고추

<건고추 도매가격 (화건, 상품)>



<홍고추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년~2002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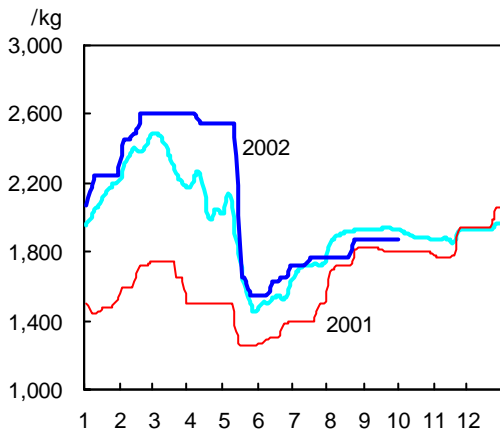
- 금년산 고추 작황은 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품질이 낮고, 역병, 탄저병, 담배나방의 피해도 증가 추세여서, 10a당 수확량은 작년보다 4% 감소한 245kg 내외가 될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예상 생산량은 작년보다 1%, 평년보다 7% 적은 17만 9,000톤 내외로 추정됨.
- 9월 고추 수입량은 564톤으로 작년 동기(3,541톤)의 15% 수준이었으나, 중국산 냉동홍고추 수입량은 173톤으로 작년과 비슷하였고, 지난달(25톤) 보다는 크게 증가함.
- 중국 익도산 고추는 내몽고, 신강 등의 고추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작황도 양호하여 익도산 고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강우와 일조량 등 기상여건이 좋아 상품성도 우수한 것으로 조사됨. 특히 산동성의 덕주, 평도 등에서는 냉동고추 가공작업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조사됨.

<2002년산 고추의 예상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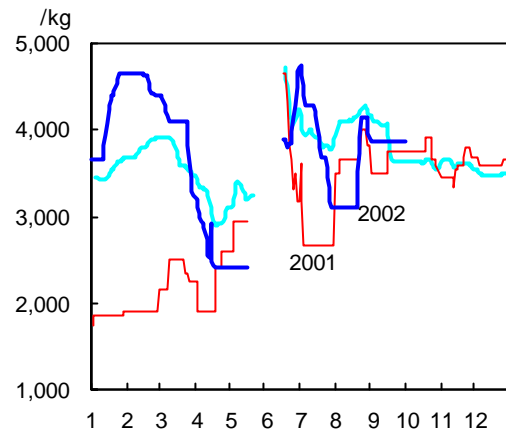
재배면적 (ha)	단수 (kg/10a)	생산량 (천톤)	생산량 증감률(%)	
			작년 대비	평년 대비
72,104	245~250	177~180	-1.9~0.1	-7.8~-5.9

라. 마늘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상품)>



<한지형 마늘 도매가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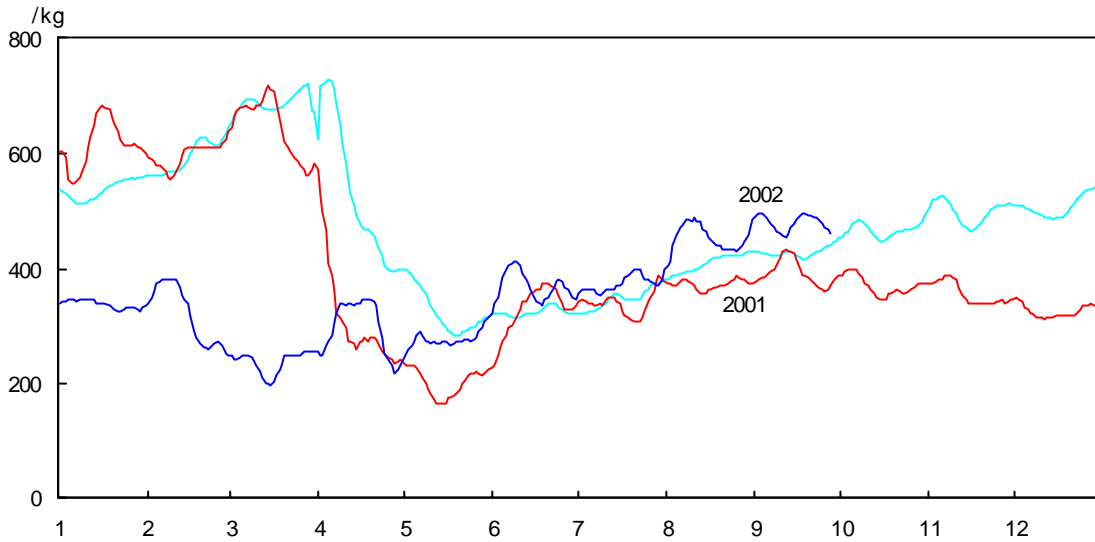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금년산 마늘 저온저장량 중 9월 16일까지 출고량은 작년보다 30% 적은 5천 9백톤, 재고량은 5% 많은 8만 9,600톤 수준임. 출고량이 작년보다 적었던 것은 주대마늘의 소비가 깎마늘로 대체되면서 가저장물량이 예년보다 많았고, 현 가격수준에 비해 저온창고 입고단가가 높아 출하를 미루고 있기 때문임.
- 마늘수입제한조치(SG) 종료후 중국산 마늘수입증가에 대한 불안심리로 저장업체들이 출하를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 10~12월까지 마늘가격은 약보합세로 전망됨.
- 내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금년보다 5% 감소한 3만 1,500ha 내외로 조사됨. 품종별로는 한지형이 3%, 난지형은 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주아재배면적은 총재배면적의 14%로 2002년산보다 8%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중국 산동성의 금년산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의 증가로 작년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동남아, 유럽 지역의 수출증대로 수출단가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중국산 마늘의 9월 민간수입원가는 신선마늘 2,260원, 깎마늘은 3,080원 수준이었으며, 국내도매원가는 신선마늘 2,600원, 깎마늘은 3,500원 내외로 추정됨.

마. 양파

<양파 도매가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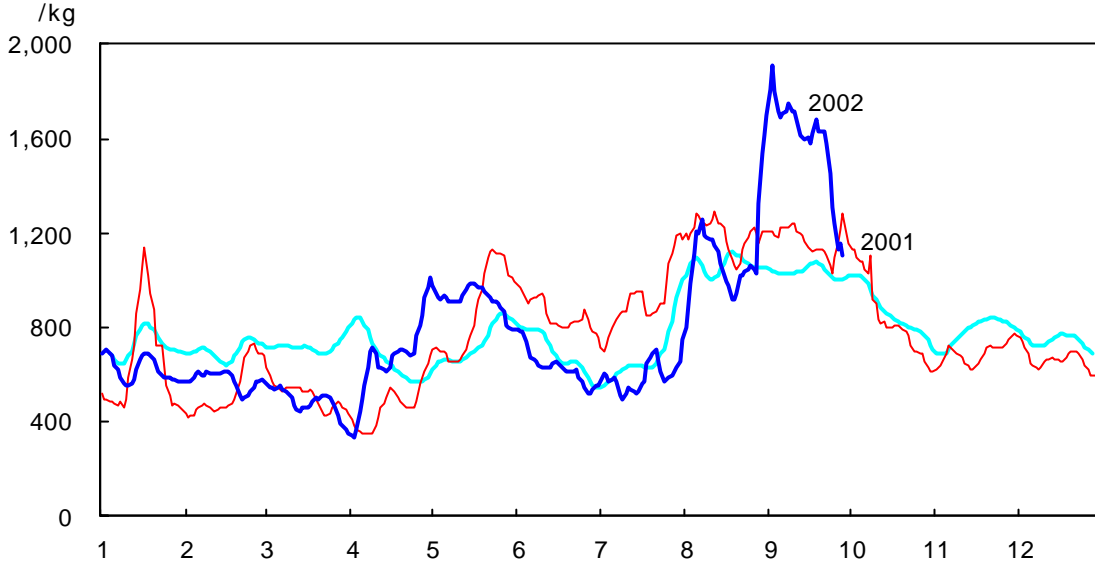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금년산 양파 저온저장량 중 9월 16일까지 출고량은 작년보다 38% 많은 2만 9천톤, 재고량은 작년보다 5% 적은 40만 8천톤으로 조사됨. 출고량이 작년보다 많았던 것은 가저장물량이 작년보다 일찍 소진되었고, 가격이 작년보다 높아 저장업체들이 출하를 앞당겼기 때문임.
- 양파 저장량이 작년보다 적고 상품성이 좋은 물량도 적지만, 추석 이후에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10월 양파가격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내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4% 감소한 1만 4,700ha 내외로 조사됨. 지역별 대체작목으로는 제주는 마늘, 양배추, 보리, 해남은 월동배추, 창녕은 보리 등으로 조사됨.
- 금년산 고랭지양파 생산량은 작년보다 30% 감소한 1만여톤으로 추정됨. 금년산 양파 저온저장량이 작년보다 적고 품질이 좋은 물량도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랭지양파의 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9월의 중국산 신선·냉장양파의 민간수입원가는 kg당 620~650원, 국내도매원가는 680~710원으로 추정되어, 당분간 중국산 신선·냉장양파의 수입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바. 대파

<대파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8~9월의 기상악화로 출하량이 적어 9월의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평년 동기보다 56%, 작년 동기보다 39% 높은 1,630원(중품 1,090원)이었음.
- 10월의 대파 출하량이 작년보다 10%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높은 상품 kg당 1,000원 내외로 전망됨.
- 겨울대파 재배면적이 작년 동기보다 8% 감소하고 태풍으로 생육상황도 나빠 9월의 남부지방 포전거래가격은 평당 6,000~6,5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약 8%(상품 기준) 높았으며 10월 이후에도 계속 높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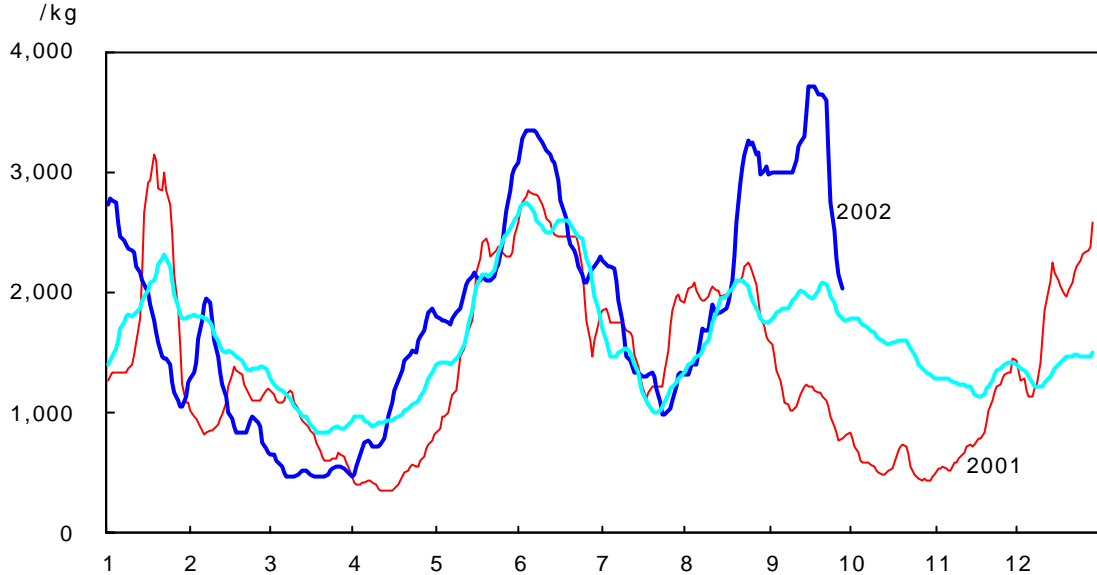
<대파 출하예상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출하시기	경기·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부산·경남	전체
10월	-7.1	-6.8	3.5	1.2	-5.5	-12.6	-5.4
김장	-6.2	3.4	0.0	3.5	1.7	6.1	3.2
겨울	-	-	-	-9.0	-	-1.3	-7.8
월동	7.9	8.2	-5.7	-	-3.4	-	3.8

사. 쪽파

<쪽파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8~9월의 기상악화로 노지쪽파 파종면적이 줄었고 태풍으로 생육상황이 나빠 상품성이 높은 쪽파 물량이 적었음. 9월의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3,07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63%, 작년 동기보다 168% 높은 수준이었임.
- 10월의 쪽파 출하예상면적이 작년보다 7% 적고, 예상단수도 2% 낮아 도매가격은 작년과 평년보다 높을 전망임.
- 김장쪽파 출하예상면적은 작년보다 1%, 겨울쪽파는 3% 감소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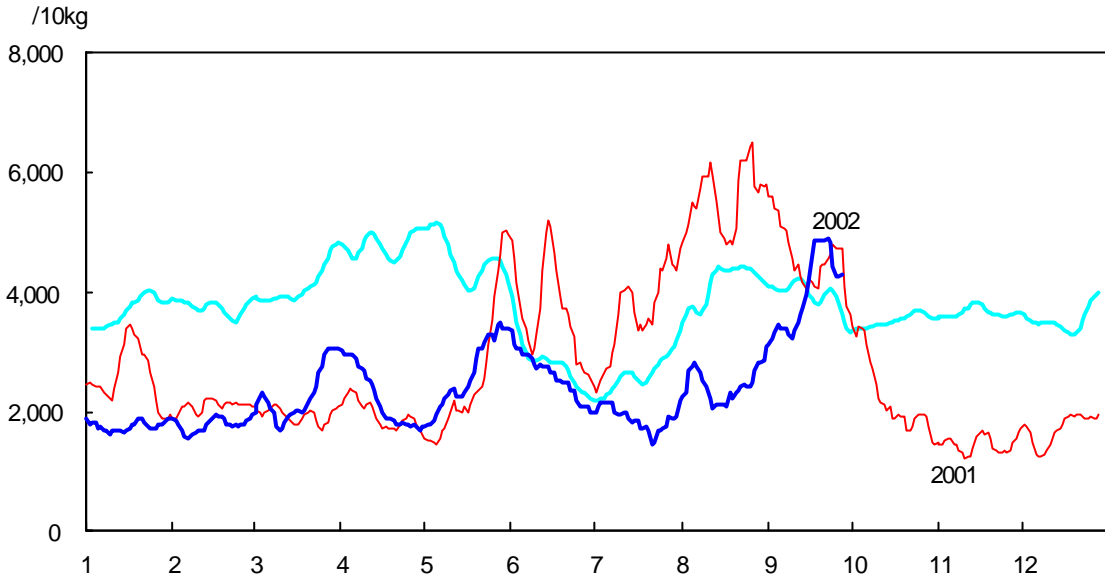
<쪽파 출하예상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출하시기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전체
10월	-4.8	-1.4	-11.1	-5.1	-3.6	-7.3
김장	0.5	4.2	-3.3	-5.6	-1.1	-0.8
겨울	-7.2	-2.5	-8.1	-0.9	3.2	-3.2

아.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9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0kg당 3,820원(중품 2,77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1%, 작년 동기보다 19% 낮은 수준이었음. 이는 가뭄으로 출하가 지연되었던 작년 동기보다 고품지양배추 출하량이 많았기 때문임.
- 10월의 양배추 출하량이 작년 동기보다 24%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2,252원)보다 높고, 9월 수준에서 보합세로 전망됨.
- 겨울양배추 재배면적은 태풍의 영향으로 지난달 재배의향조사치(10% 감소)보다 더 감소하여 작년 동기보다 12% 적을 것으로 조사됨. 감소한 면적에는 월동배추, 맥주보리, 양채류 등이 재배될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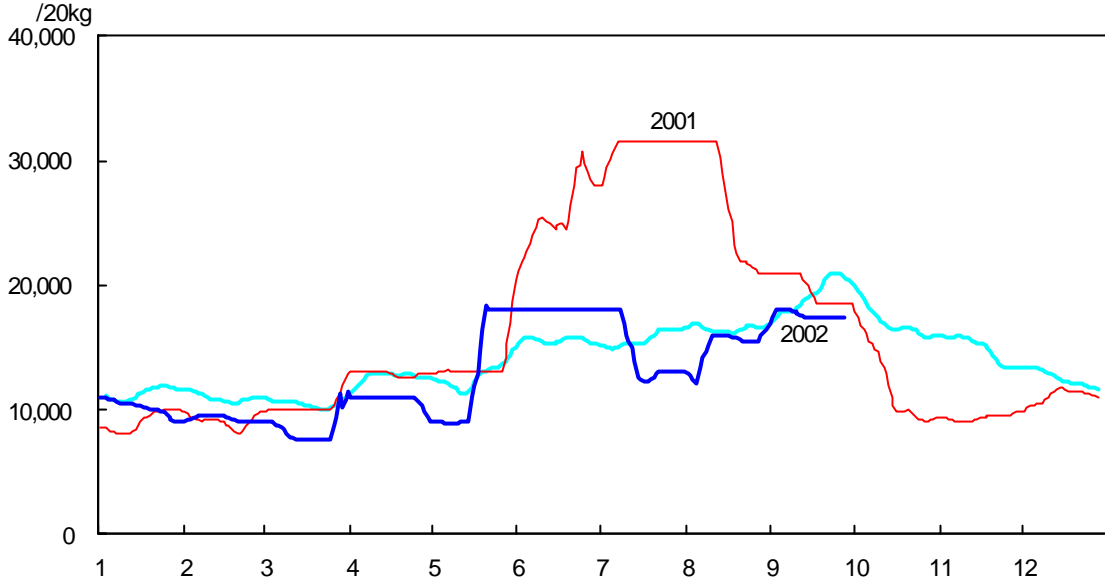
<겨울양배추 재배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조사시기	호남	제주	전체
7. 20	1.1	-9.6	-5.4
8. 20	-4.6	-11.5	-9.7
9. 18	-8.8	-13.6	-12.4

자. 당근

<당근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9월의 상품 20kg당 도매가격은 17,610원(중품 11,63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4%, 작년 동기보다는 11% 낮았음. 이는 8~9월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고랭지 포전 부패율이 높아져 조기출하된 물량이 많았기 때문임.
- 10월에는 당근 출하예상량은 작년 동기보다 25%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품 20kg당 도매가격은 작년(11,913원)이나, 평년 동기(17,083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겨울당근 재배면적은 태풍의 영향으로 지난달 조사치(7% 감소)보다 더 감소하여 작년 동기보다 20% 적을 것으로 조사됨. 감소한 면적에는 콩, 마늘, 쪽파 등이 재배될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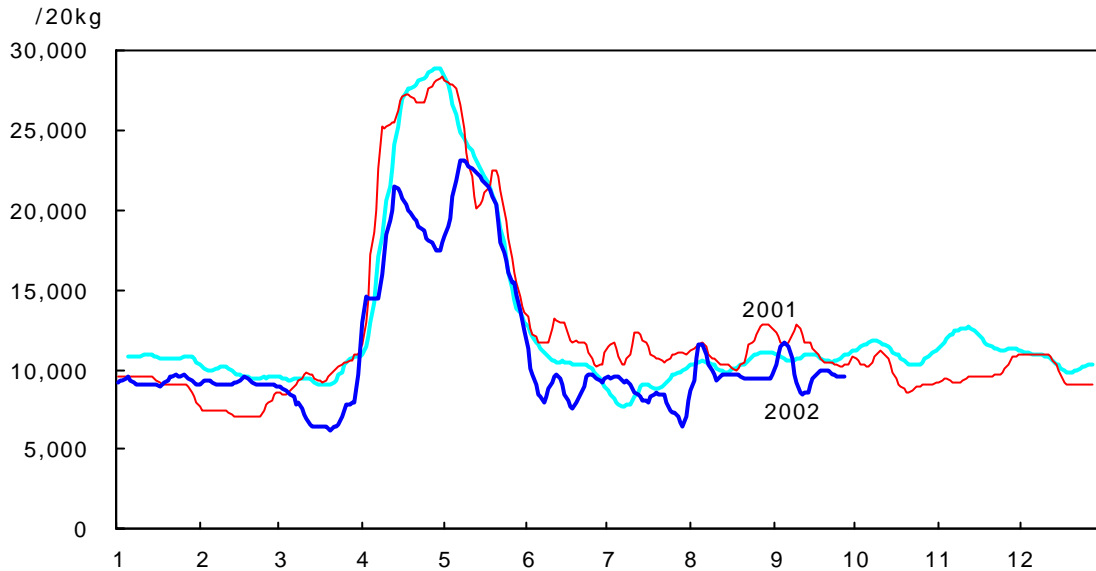
<겨울당근 재배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조사시기	남제주	북제주	전체
7. 20	-3.4	-8.7	-6.5
8. 20	-5.7	-7.9	-7.2
9. 18	-13.7	-21.7	-19.5

차. 감 자

<감자 도매가격 (수미, 상품)>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7~200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9~10월에 출하될 고랭지감자(수미)의 10a당 수확량은 작년보다 9% 감소한 3,000~3,100kg, 생산량은 작년보다 15%, 평년보다 10% 감소한 13만 8,000톤 내외로 추정됨.
- 고랭지감자의 월별 출하면적은 9월에는 작년보다 5%, 10월 6%, 11월 이후에는 15% 감소할 것으로 조사 되었고, 10월 고랭지감자 출하량은 작년보다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집중호우로 인해 상품성이 하락하여 가격은 상품 20kg당 11,000원 내외로 지난달보다 높지만, 작년 동기와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가을감자(대지)의 파종면적은 작년보다 9% 감소한 4,410ha 내외이고, 10a당 생산량은 작년보다 5% 감소한 2,000~2,100kg이 될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파종면적에 예상단수를 적용한 금년 가을감자 생산량은 작년보다 12% 감소하였으나, 평년보다는 6% 많은 9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됨.

<가을감자 예상생산량>

예상면적 (ha)	예상단수 (kg/10a)	예상생산량 (천톤)	생산량 증감률(%)	
			작년 대비	평년 대비
4,410	2,000~2,100	88.2~926	-14.4~-10.2	35~8.6

2. 과채 수급동향과 전망

가. 개황

- 9월 과채류 도매가격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이렇게 가격이 높았던 것은 면적이 줄어든 데다가 8월 국지적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피해로 유실 및 침수된 면적이 있고, 단수가 낮아 작년보다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이며, 대체과일물량도 적었기 때문임.
- 10월에 출하될 오이(백다다기), 호박(쥬키니), 참외 물량은 지난해보다 적어 도매가격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수박, 토마토는 지난해보다 출하량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체과일물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매가격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됨.
- 과채류 10월 정식의향면적은 작년 11월 이후 가격이 좋아 전반적으로 늘어날 전망.

<작년 동기대비 과채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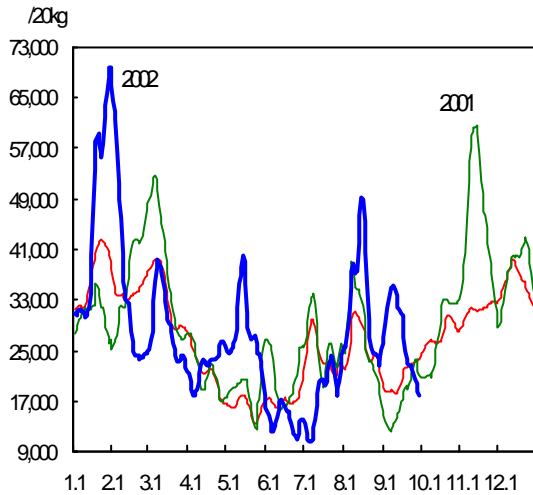
단위: %

	1~8월 가격		9월 가격		10월 가격	
	작년동기 대비	평년동기 대비	작년동기 대비	평년동기 대비	작년동기 대비	평년동기 대비
수박	12	△33	27	7	보합	-
참외	22	13	26	6	+	+
토마토	21	25	8	20	+	-
방울토마토	42	22	0	△2	+	-
호박(쥬키니)	△9	9	338	144	+	+
호박(애호박)	10	△1	176	136	-	+
오이(취청)	2	7	65	38	-	-
오이(백다다기)	△2	△10	37	5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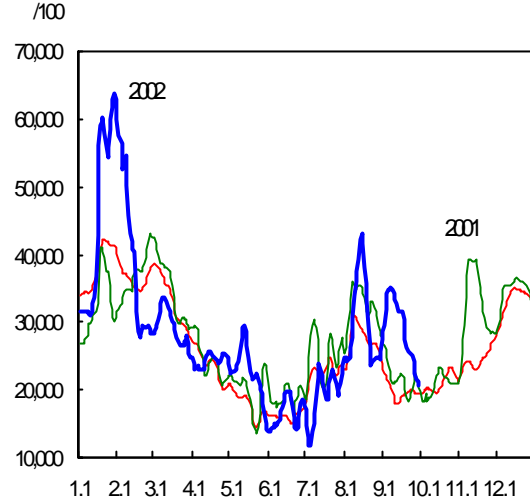
주 : 평년은 1997~2001년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가. 오이

<취청 도매가격>



<백다다기 도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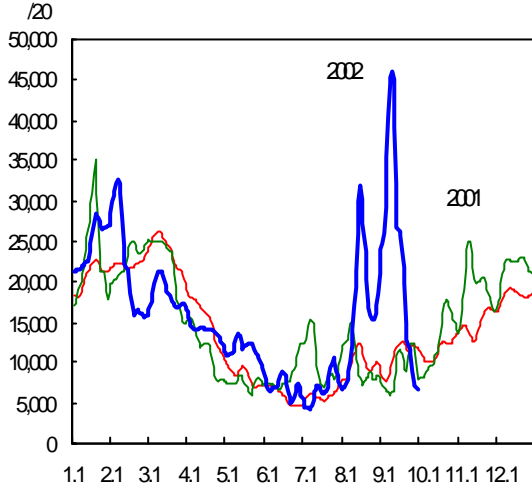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상품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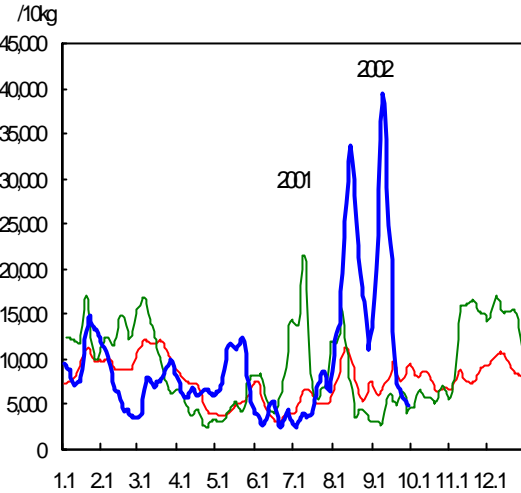
- 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9월 취청 출하량은 중순까지 작년보다 적었고 하순부터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8% 많았으나 상품 20kg 당 도매가격은 작년 1만 7,200원보다 65% 높았음. 8월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9월 백다다기 출하량은 작년보다 26% 적어 상품 100개당 도매가격은 작년 2만 1,700원보다 37% 높았음.
- 10월에 출하될 취청 예정면적은 늘고 단수가 회복되어 출하예상량은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10월 취청 도매가격은 작년 2만 8,6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10월에 출하될 백다다기 예정면적이 줄고 단수도 낮아 출하예상량은 작년보다 2~6% 적을 것으로 보여, 10월 백다다기 도매가격은 작년 2만 1,0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10월에 정식하는 취청 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10월에 정식할 백다다기 의향면적은 작년 11~12월의 가격이 전년보다 높아 작년보다 2~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나. 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쭈키니 도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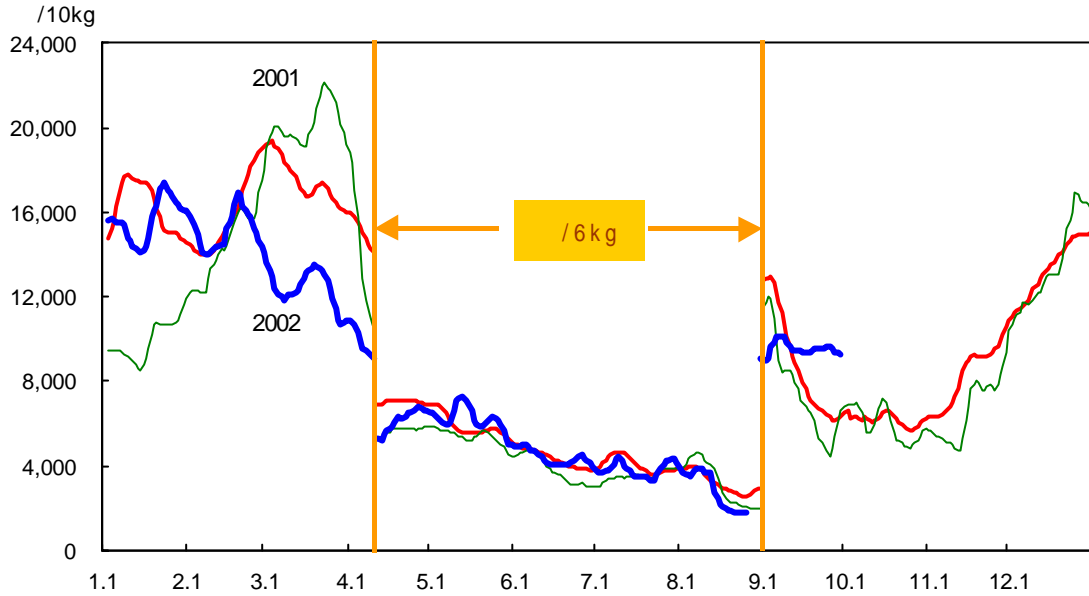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상품 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면적이 있어 9월 출하예정면적이 적었고 태풍 '루사'로 인해 바람이 세게 불어 하우스가 파손되면서 습해 및 냉해가 발생하여 단수도 낮아 출하량이 작년보다 적었음. 9월 도매가격은 작년(애호박: 2만 4,960원/20개, 쭈키니: 1만 9,500원/10kg)보다 176~338% 높은 수준임.
- 10월에 출하될 애호박 예정면적이 작년보다 늘고 단수도 회복되어 출하예상량은 작년보다 1~5% 많을 것으로 보여 10월 애호박 상품 20개당 도매가격은 작년 1만 3,3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10월에 출하될 쭈키니 예정면적도 작년보다 적은데다 단수도 낮아 출하예상량은 작년보다 6% 적을 것으로 보여 10월 쭈키니 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작년 6,0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10월에 정식하는 애호박 의향면적은 작년 11~12월의 가격이 전년과 평년보다 높아 작년보다 2~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쭈키니 정식의향면적도 작년보다 3~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다. 수박

<수박 도매가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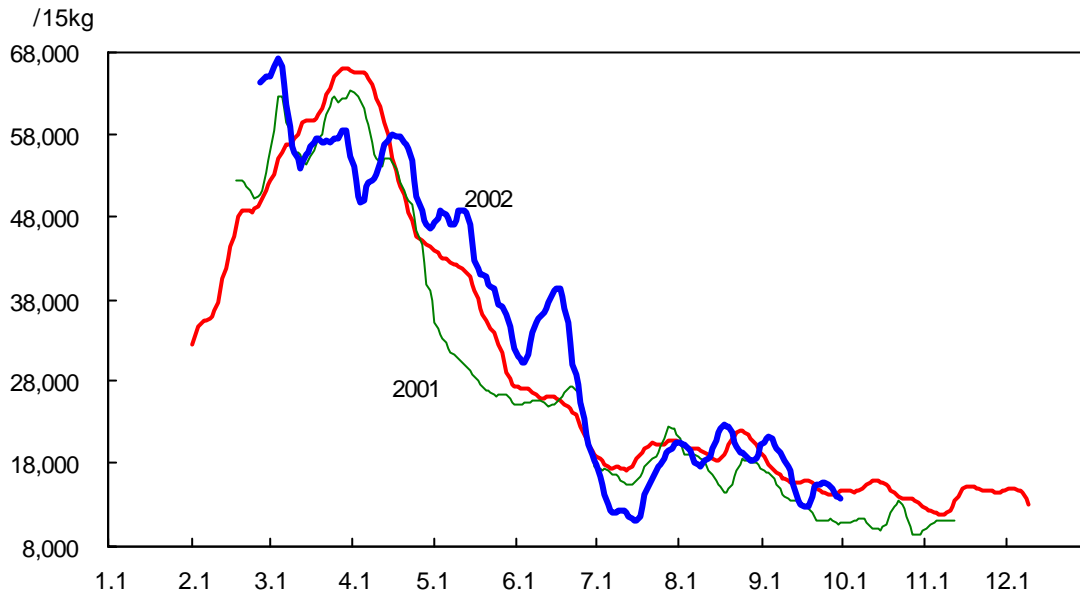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상품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9월~익년 4월 11일~8월 31일까지는 상품 6kg 개당 수치임.

- 9월 수박 출하량은 작년보다 9% 많았으나 대체과일 물량이 적어 가격은 작년(상품 7,587원/10kg)보다 27% 높고, 평년(상품 9,029원/6kg)보다는 7% 높았음.
- 10월 출하예정면적은 8월 국지적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침수 및 유실된 면적이 있어 당초 출하될 예정면적보다는 줄었지만 작년보다는 6~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금년 수박가격이 좋아 토마토, 딸기 등 후작으로 수박재배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임.
- 10월 수박단수는 작년보다 4~5%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흐린날이 많아 병해충 발생률이 높고, 습해와 생리장해로 공동과 및 미숙과가 증가하여 단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10월 출하량이 작년보다 2~3%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참외 등 대체과일 물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품 10kg 상자당 도매가격은 작년 5,900원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라. 참외

<참외 도매가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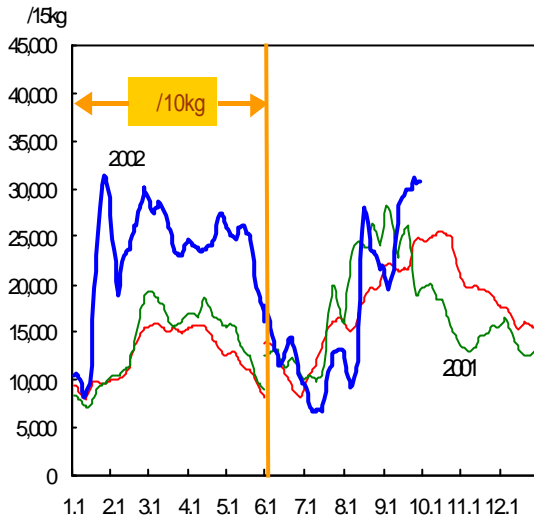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7~2001년의 상품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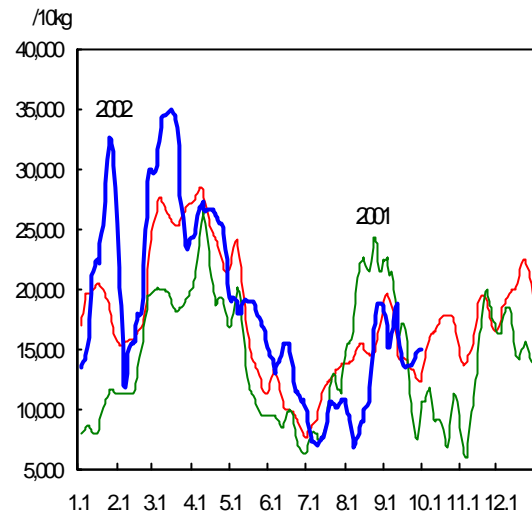
- 9월 참외 출하량은 작년보다 적어 가격은 작년(상품 1만 3,000원/15kg)보다 26% 높고, 평년(상품 1만 5,500원/15kg)보다는 6% 높았음.
- 10월 출하예정면적은 작년보다 9~10% 줄어들 전망. 이는 작년 도매가격이 좋았으나 주산지인 경북지역이 노동력부족으로 재배면적을 줄인 농가가 많았고, 연작피해로 고사주 발생이 많아 면적이 줄어든 데다가 8월 국지적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유실 및 침수된 면적이 있었기 때문임.
- 10월에 출하될 참외단수는 성주를 중심으로 대량생산보다는 품질위주의 생산으로 전환되면서 단수가 작년보다 낮아진 데다가 8월 계속된 강우와 태풍으로 흐린날이 많아 병해충 발생률이 높고, 습해와 생리장해로 단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10월에 출하될 물량은 단수가 낮고 면적도 줄어 작년보다 15~1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도매가격은 상품 15kg당 작년 1만 1,000원보다 높을 전망.

마. 토마토

<일반 토마토 도매가격, 원/15kg>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원/10kg>



- 9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5% 많았지만 대체과일 물량이 적어 작년 상품 15kg당 2만 310원보다 8% 높았고, 방울토마토는 출하량이 작년보다는 3% 적었지만 품질이 좋지 않아 작년 상품 10kg당 1만 5,520원과 비슷하였음.
- 일반토마토와 방울토마토의 10월 출하예정면적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일반토마토는 주 출하지인 강원 홍천, 횡성, 화천, 춘천의 재배면적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방울토마토는 당초 출하될 예정면적보다 8월 태풍 피해로 1~3% 줄지만 전체적으로 5% 늘어날 전망이다.
- 10월 도매가격은 출하될 일반토마토의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지만 대체과일물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품 15kg당 작년 1만 7,410원보다 높고 평년 2만 2,570원보다 낮을 전망. 방울토마토도 10월 출하예상량이 작년보다 많지만 대체과일물량이 적어 상품 10kg당 작년 9,780원보다 높고 평년 1만 7,120원보다 낮을 전망.
- 일반토마토 10월 정식의향면적은 태풍으로 유실 및 침수를 당한 지역 농가들의 정식시기가 작년보다 15일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여 당초 1~2%보다 더 늘어난 5~7%. 방울토마토는 당초 2~3%보다 더 늘어난 5~6%로 전망됨.

3. 과일 수급동향과 전망

가. 개황

- 공급량이 많았는데도 9월 사과 가격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 공급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배, 단감 가격은 품질 저하로 지난해보다 15% 낮음, 공급량 부족으로 포도, 복숭아 가격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높음.
- 과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 내외 감소할 전망, 성목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전체적으로 단수가 감소할 전망, 감귤, 배, 단감의 모양과 당도 등의 품질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전망.
- 추석 출하량이 적어 10월이후 배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8% 많을 전망, 미국 오렌지 생산량이 18% 증가할 전망이며, 환율 및 관세를 하락이 예상되므로 11월 이후 오렌지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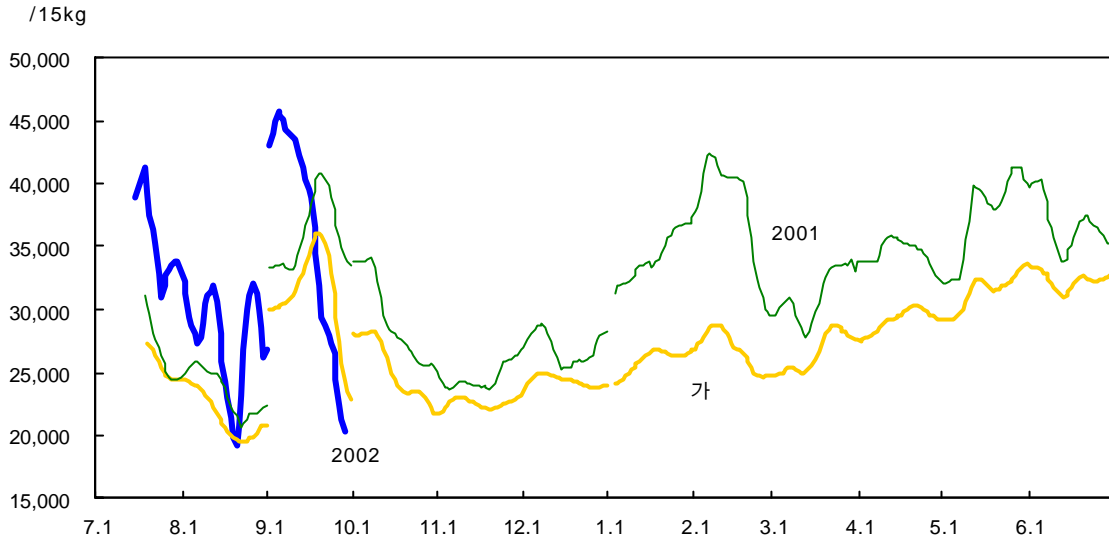
(단위 : %)

	8월 가격		9월 가격	
	지난해대비	평년대비	지난해대비	평년대비
사과	17	28	3	△6
배	△50	△53	△16(53)	△38
단감	-	-	△15	△29
포도	23	21	36	28
복숭아	△18	△9	31	43
감귤	△12	△22	△3	△14
오렌지	△19	△13	△3	6
전체	△8.9	-	15.6	-

주 : 괄호안은 원황 기준.

나. 사과

<사과 도매 가격>



주: 7~8월은 쓰가루, 9월은 홍로 10월 이후는 후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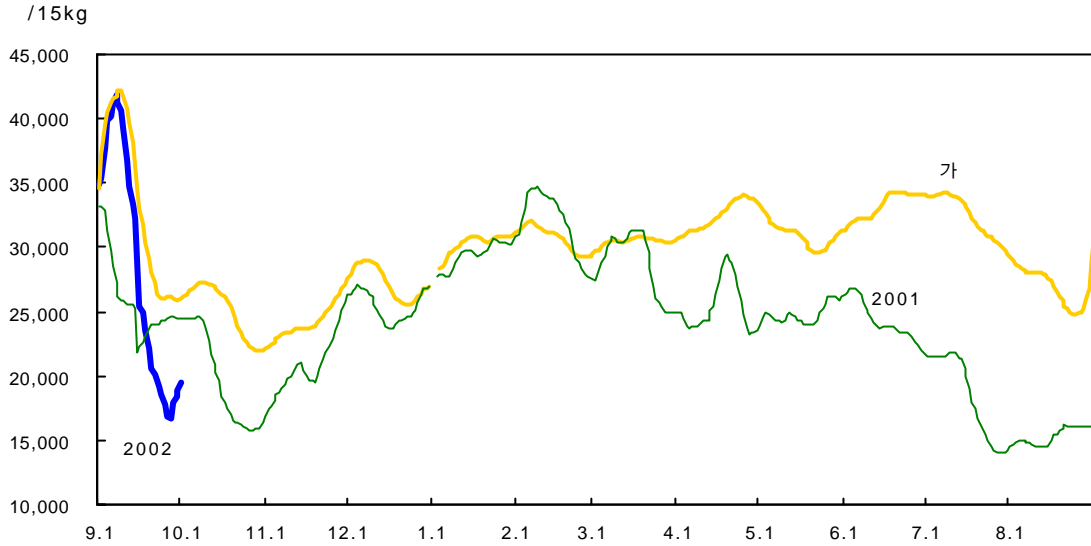
- 홍로 상품 15kg당 가격은 추석전 4만 7천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추석 이후 하락하여 9월 가격은 3만 7천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3%(650ha) 적고 단수는 3%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40만톤 전망.
- 10월 이후 공급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27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배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10월 이후 가격은 지난해(후지 상품 15kg당 3만 1천원)보다 약간 낮을 전망.

<사과 공급 전망>

		생산량 (A)	7~9월 공급량(B)	수출량 (C)	10월 이후 공급량(A-B-C)
공급량 (천톤)	2001년산	404	129	32	271
	2002년산	401	127	33	270
2002/2001 증감률(%)		-0.7	-1.5	33	-0.3

다. 배

<배 도매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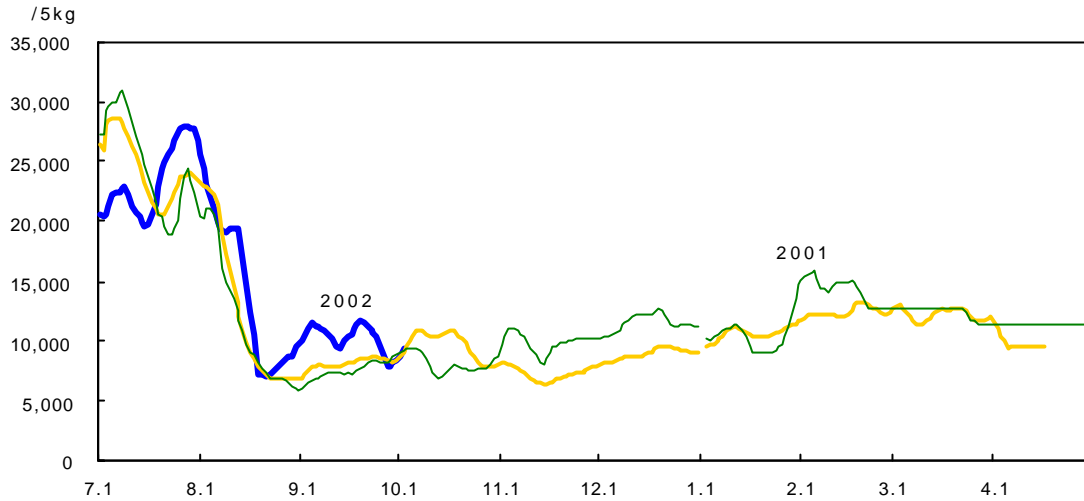
- 신고 가격은 추석전 2만 8천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9월 가격은 지난해보다 16% 낮은 2만원 수준, 원황은 3만 8천원으로 신고 가격의 두배 수준.
- 성목면적은 16%(2,320ha) 늘어난 1만 7,110ha이며 단수는 태풍피해 등으로 인해 15%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1만톤) 적은 41만톤 전망.
- 10월 이후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8% 많은 30만톤 수준이 될 전망이며, 수출량은 대만 수출량 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18% 많은 1만 9천톤 전망.

<배 공급 전망>

		생 산 량 (A)	9월 공급량(B)	수출량 (C)	10월 이후 공급량(A-B-C)
공급량 (천톤)	2001년산	417	125	16.2	276
	2002년산	409	92	19.1	298
2002/2001 증감률(%)		-1.9	-26.3	17.8	8.1

라. 포도

< 포도 도매 가격 >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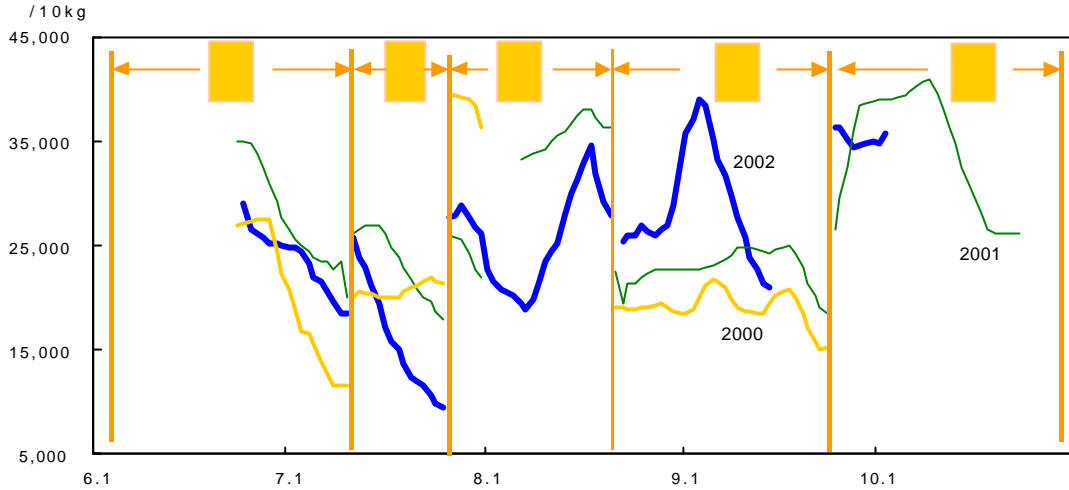
- 노지포도 수확량 감소로 9월 포도가격은 지난해보다 40% 높았음.
- 화진현상과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로 노지포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7%(7만톤)감소한 36만톤 수준인 것으로 추정.
- 지역별 생산량은 충청지역이 지난해보다 23%, 영·호남 지역 17% 감소하였으나 경기지역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임.

<노지포도 생산 전망>

	성목면적(ha)	성목단수(kg/10a)	생산량(천톤)
2001년	21,092	2,056	430
2002년	20,639	1,740	360
2002/2001 증감률(%)	-21	-15.2	-17.0

마. 복숭아

< 복숭아 도매 가격 >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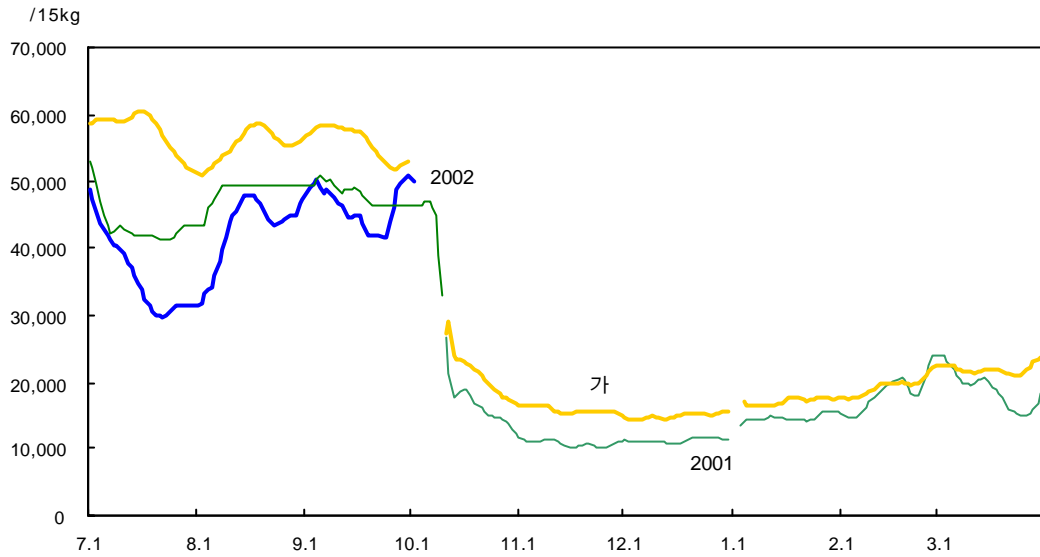
-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출하량 감소로 9월 복숭아(유명)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았으나, 9월 하순 이후 황도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아짐.
-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에 의한 낙과로 복숭아의 단수는 지난해보다 7% 감소한 것으로 추정. 성목면적이 지난해보다 10%(820ha) 늘어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4천톤) 많은 17만톤으로 추정.

<생산 전망>

	성목면적(ha)	성목단수(kg/10a)	생산량(천톤)
2001년	8,062	2,062	166
2002년	8,890	1,922	171
2002/2001 증감률	10.1	-6.8	26

바. 감귤

< 감귤 도매 가격 >



주: 7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하우스감귤 5kg을 15kg으로 환산한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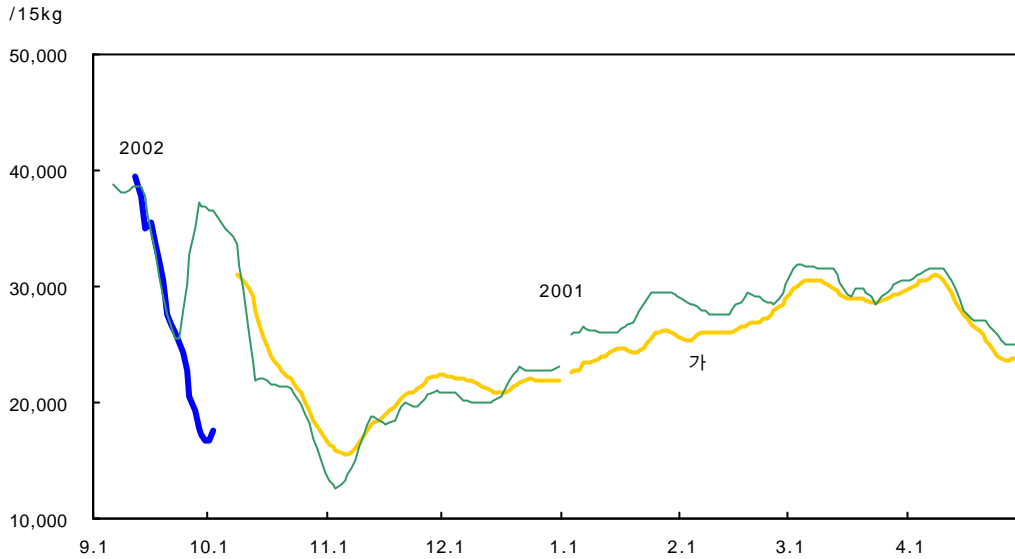
- 9월 하우스감귤 가격은 상품 5kg당 1만 5,600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슷함.
- 작년 휴식년을 했던 과원이 포함되어 노지감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 적고, 재작년보다는 13% 많은 58만톤 수준 전망.
- 미국 오렌지 생산량이 18% 증가할 전망이며, 환율 및 관세율 하락이 예상되므로 11월 이후 오렌지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날 전망.

< 노지감귤 생산전망 >

생산량(천톤)			대비(%)	
2002년	2001년	2000년	작년	재작년
584	600	518	-27	130

사. 단감

< 단감 도매 가격 >



주: 9월은 기타단감, 10월 이후는 부유 상품 15kg 기준임.

- 조생종 단감 9월가격은 상품 15kg당 2만 9,200원으로 지난해보다 15% 낮았음. 이는 서리피해와 비가 자주내려 품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
- 성목면적이 지난해보다 2% 감소하고 단수는 동해와 가뭄피해가 있었던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어서 단감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 감소한 19만톤 수준 전망.
- 단감의 품질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특히 서촌조생은 경북지역의 서리피해와 경남지역의 개화기 잦은 강우로, 차량은 전남지역의 해거리로 품질이 좋지 못함.

<공급 전망>

		생 산 량(A)	9월 공급량(B)	10월 이후 공급량(A-B)
공급량 (천톤)	2001년산	198	11.3	186
	2002년산	194	8.4	186
2002/2001 증감률(%)		-17	-25.0	-0.3

4. 축산물

가. 개황

- 추석을 대비하여 8월 한육우 도축두수는 전월에 비해 16% 증가, 쇠고기 수입은 전월에 비해 15% 증가하였으나, 쇠고기에 대한 추석 수요 증가로 한우 산지가격은 9월말까지 계속 상승하였음. 한우 도축물량 부족으로 한우 암소와 수소의 가격차이는 점차 좁혀짐.
- 원유재고량 증가로 초임만삭우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9월 초임만삭우 가격은 전년동월(272만 5천원)보다 2.5% 하락한 265만 6천원임.
- 9월 성돈 산지가격은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출하두수 증가와 수입물량 증가 등 공급물량 증가로 전년동월(16만 7천원)보다 18% 하락한 13만 9천원이었음.
- 9월(1~30일) 계란가격은 공급물량 증가로 전년동기보다 10.7% 하락한 867원임. 10월 가격도 공급물량 증가로 전년동기(913원)보다 하락한 750~850원이 될 전망이다.
- 9월 육계 산지가격(1~30일)은 공급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1,148원)보다 32.3% 하락한 kg당 777원임. 10월 산지가격도 전년동기(1,351원)보다 하락한 700~800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및 평년 동기 대비 가격의 등락률>

단위: %

	1~8월 가격		9월 가격 ¹⁾	
	지난해동기대비	평년 ²⁾ 동기대비	지난해동기대비	평년동기대비
한우(큰수소)	28.5	50.8	12.8	50.8
한우(수송아지)	34.2	103.6	22.5	99.2
초임만삭우	14.2	30.6	△2.5	15.9
돼지	7.4	3.4	△17.9	△19.2
육계	△12.7	△4.2	△32.3	△27.3
계란	△10.1	△1.8	△10.7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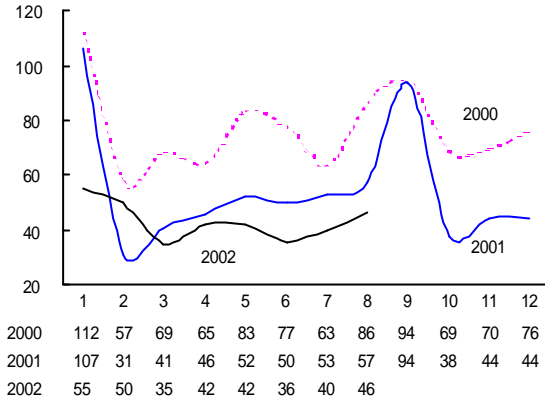
주 : 1. 평년은 1997~2001년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2. 9월가격은 1~30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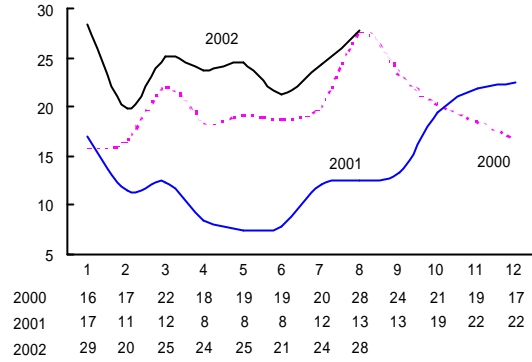
나. 한육우

<한육우 월별 도축현황>



자료: 농림부.

<쇠고기 수입(검역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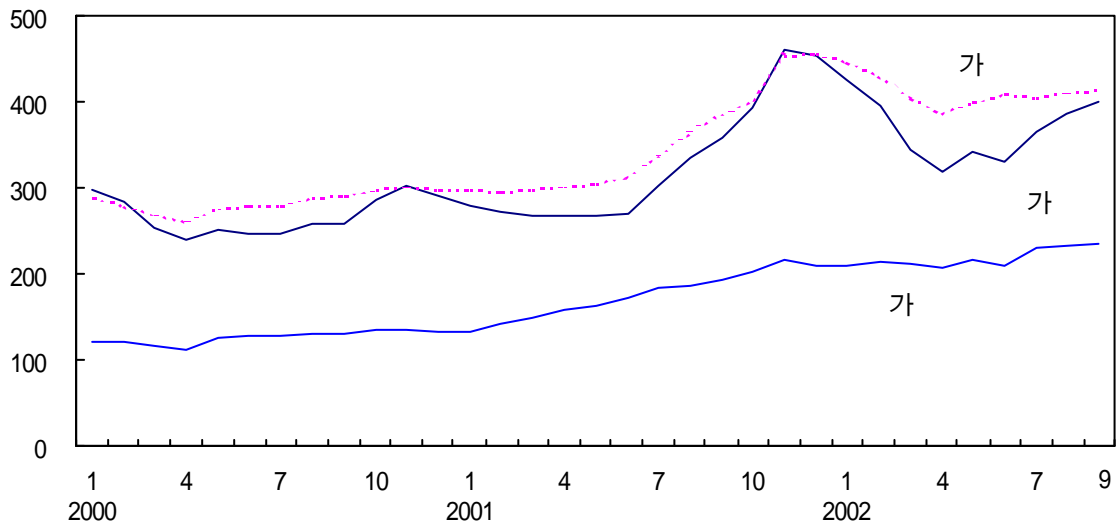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8월 한육우 도축두수는 4만6천두로 전월에 비해 16% 증가,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18% 감소하였고, 8월 쇠고기 수입은 2만8천톤으로 전월에 비해 15% 증가하였음.

○ 추석을 대비하여 한육우 도축두수와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쇠고기 에 대한 추석 수요 증가로 한우 산지가격은 9월말까지 계속 상승하였음. 한우수소(500kg) 산지가격은 9월 평균 400만원대까지 상승하였고, 한우암 소(500kg) 산지가격은 410만원대로 상승하였음. 물량부족에 따른 산지가 격 상승으로 암소와 수소의 가격의 폭은 좁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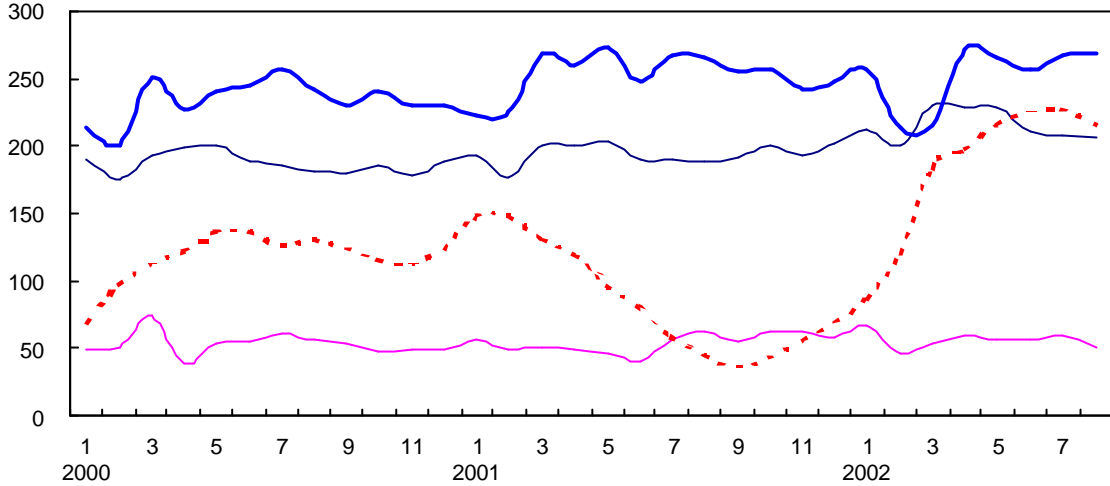
<한우 산지가격>



자료: 농협중앙회.

다. 젓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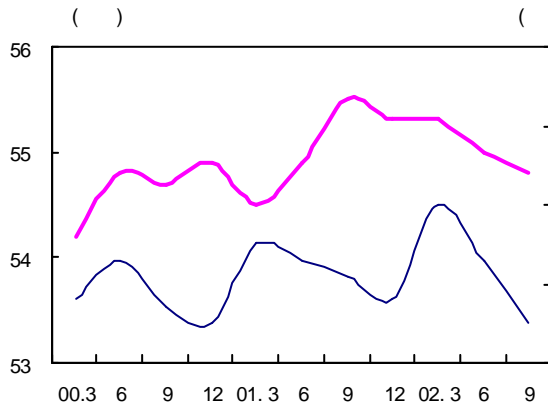
<원유 수급>



자료: 낙농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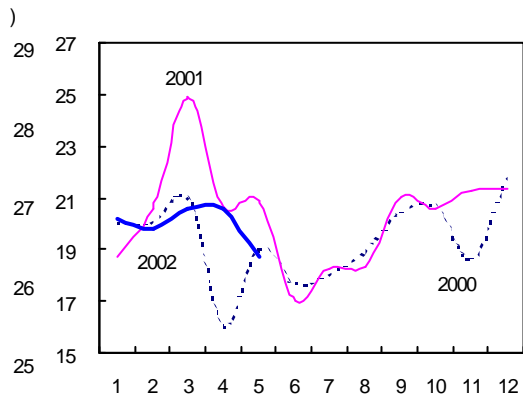
- 8월 원유소비량은 전년동월보다 1.4% 증가하고 수입량(원유환산)은 19.4% 감소하였으나, 원유생산량은 여름 더위로 인한 감소효과가 적어 전년동월보다 8.7% 증가하여 8월 원유재고량은 전년동월보다 크게 증가한 21만 5천톤임(전월보다 5.4% 감소).
- 9월 젓소 사육두수는 착유우 도태정책(4~6월)으로 2세이상 암소두수가 감소하여 전년동기보다 1.3%(5천두) 감소한 54만 3천두이고, 착유우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2.3%(6천두) 감소한 25만 5천두임.

<젓소 사육두수>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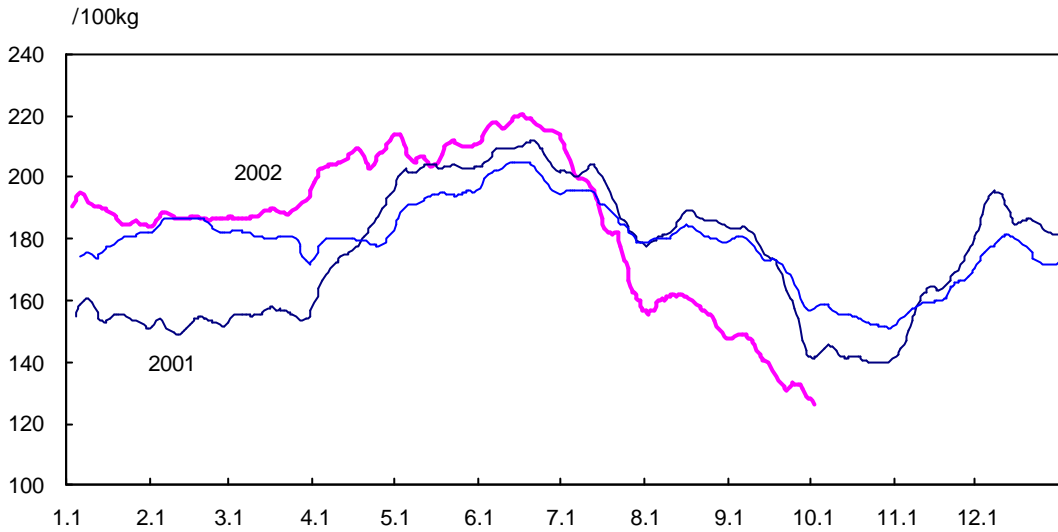
<월별 인공수정실적>



자료: 농림부.

라.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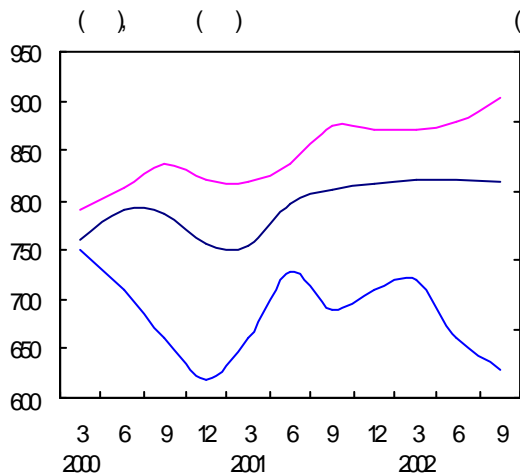
<성돈 산지가격>



주: 5일이동평균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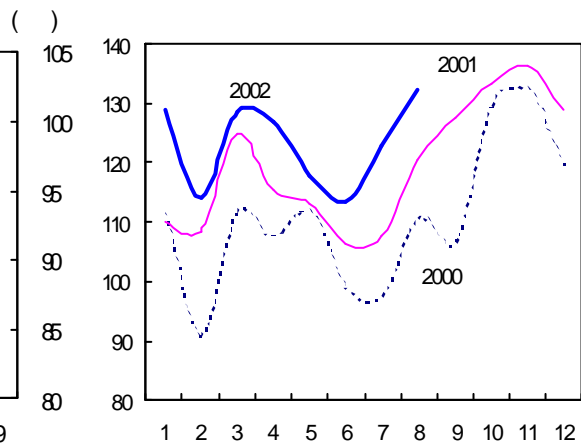
-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출하두수가 증가하여 9월 성돈(100kg) 산지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8% 하락한 13만 9천원이었음. 9월 30일 현재 평년(15만 7천원)보다 20% 하락한 12만 6천원임.
- 9월 사육두수는 전분기보다 2.8%, 전년동기보다 3% 증가한 903만두, 모돈수는 전년동기보다 0.5% 증가한 95만 6천두로 나타남. 10월에도 사육두수 증가로 산지가격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돼지 총두수와 모돈수>



자료 : 농림부, 가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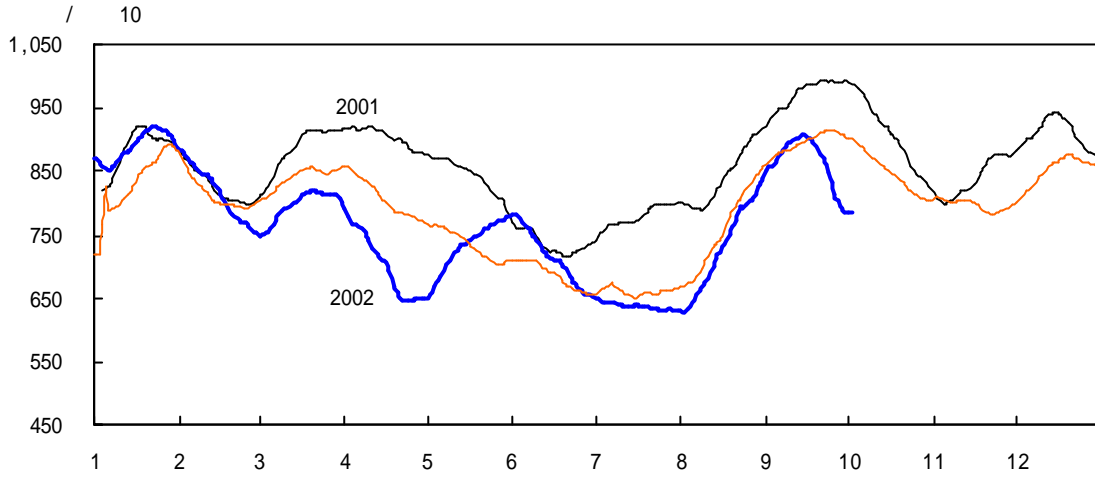
<월별 도축두수>



자료:농림부.

마. 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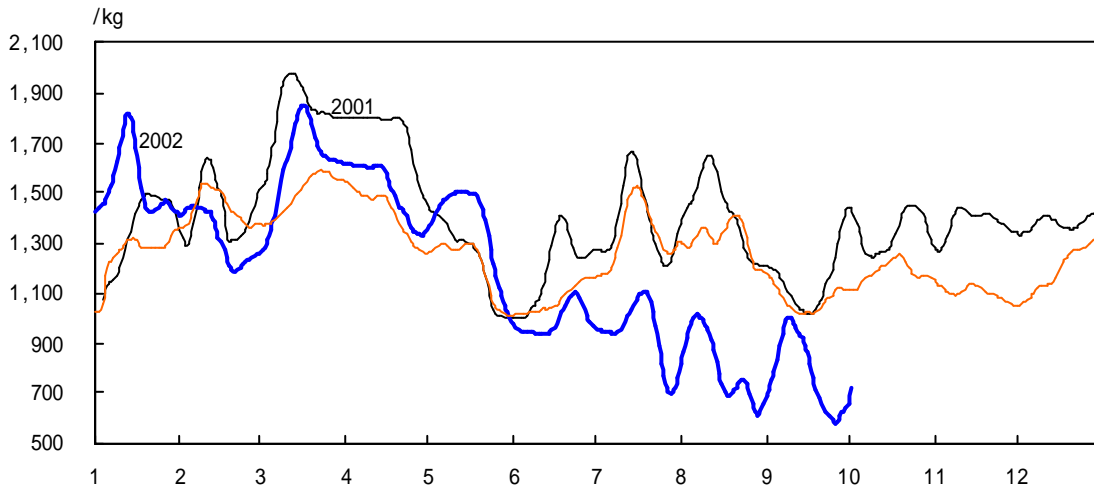
<계란 산지가격>



주: 5일이동평균가격.

- 9월 계란가격(1~30일)은 공급물량의 증가로 전년동기보다 하락한 867원 (특란 10개)이었음. 10월 계란가격도 공급물량 증가로 전년동기(913원)보다 하락한 750~85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육계 산지가격>



주: 5일이동평균가격.

- 9월 육계산지가격(1~30일)은 도계물량이 증가하여 전년동기보다 32.3% 하락한 kg당 777원이었음. 10월 산지가격도 도계물량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1,351원)보다 하락한 kg당 700~8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IV. 지역 언론 보도 동향

<지방일간지 23종에 보도된 9월중 농업관련 주요 이슈>

■ 보도 개황

- 9월초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전국적으로 극심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언론보도는 농작물 피해규모와 복구비 지원 등에 집중되었음.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이 실효성이 없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다수 취급되었고, 9월 하순에는 태풍 피해로 인해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보도된 가운데, 농민들의 쌀값 안정 요구도 계속되었음.
- 이와 함께, 전북 등 일부지역에서는 보리계약재배 물량이 편파적으로 배정됐다는 불만 여론이 취급되었고, 9월 중순 농기계 대리점들이 ‘농업종합자금제’에 반발해 휴업에 들어가면서 수확철 적기 영농차질을 우려하는 여론도 다수 다뤄졌음.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9월 하순 송아지값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0% 가량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돼지값은 사육두수 증가로 30% 정도 하락하는 등 가격파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관심있게 취급되었음.

□ 수해 농가 ‘보상범위’ 불만

- 9월 중순 정부가 태풍피해 대부분 지역을 ‘특별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해 각 지역에서는 보상범위를 놓고 마찰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다수 취급되었음. 강원지역에서는 농경지 50% 이상 피해때만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전북지역에서는 농업관련 시설 및 작물 복구 용자금 규모가 커져 ‘빚잔치’가 우려된다는 보도도 있었음. 또, 경북지역에서는 피해규모와 지원금액을 놓고 주민 반발이 거세 마찰이 우려된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특별지원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음.

□ ‘농작물재해보험 실효성 없다’ 여론

- 농민들은 이번 태풍 피해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

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과 지역을 제한해 전남과 경북지역의 경우 가입률이 10%선에 그치고 있고, 내용면에서도 '호우' 피해는 특약으로 구분해 가입한 농가도 호우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는 경우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함. 또, 감귤도 낙과율 30% 이상에만 한정하고 시설재배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약이 많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상지역 및 품목 등의 확대를 촉구함.

□ 벼농사 피해 예상보다 큰 것으로 관측

- 태풍과 일조량 부족 등 기상 악화로 전남지역에서는 올해 쌀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7~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경남지역에서도 백수 피해 규모가 5백70여ha에 달해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보도가 비중있게 취급되는 등 9월 하순 각 지역에서 벼농사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한편, 경남지역 등 농협 RPC가 적자 운영에 자체 수매여력이 없고 정부 지원금도 깎여 수매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수매시기를 맞아 쌀관련 기사가 증가하고 있음.

□ 농민 쌀값 안정 요구 확산...쌀값은 오름세

- 추곡수매 시기가 다가오면서 경기지역에서는 농민과 지역농협이 벌써부터 수매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9월 중순 경기 평택지역과 전북 정읍 등에서는 농민들이 농민단체와 연계해 '쌀값 보장' 및 '쌀 수입반대'를 위한 대책위를 발족시키시는 등 쌀값 보장을 위한 농민들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함.
- 한편, 9월 하순 전북지역에서는 소비자 가격으로 햅쌀이 80kg당 17만1천원선에 거래돼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천원 이상 오른 것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최근 한달새 3~6%가량 올랐다고 보도함. 언

론들은 이같은 쌀값 상승세를 대북 쌀 지원으로 재고가 줄고, 햅쌀 공급이 수요에 못미쳤기 때문으로 분석함.

□ 보리 계약재배 수매량 편파 배정 '원성'

- 전북지역에서는 농림부가 2003년산 보리계약재배 면적 배정에서 일부지역은 상향조정하면서도 전북지역은 오히려 8.4%나 줄이는 등 편파적으로 배정했다는 비난 여론이 비중있게 다뤄졌고, 제주지역에서는 마땅한 대체작목도 없는 맥주보리 수매량을 제한적으로 배정한 다며 불만여론이 높다는 보도가 취급되는 등 보리 계약재배 물량 배정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음.

□ 농기계 대리점 일제 휴업으로 영농차질 우려

- 농기계대리점들이 농협의 농기계관련 사업에 참여를 허용한 '농업종합자금제'에 반발, 전국적으로 일제히 휴업에 들어가면서 수확기를 맞은 농촌지역에서는 적기영농 차질을 우려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농민들은 농협과 행정당국이 이번 사태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농민단체에서는 농기계 구입자금을 농업종합자금에 포함시켜 영세농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돼지값 파동 조짐

- 전남과 경남 등 대부분 지역에서 9월 중순 현재 송아지값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0% 가량 오르는 등 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돼지값은 사육두수 증가로 14만원선까지 떨어지면서 가격 파동을 우려하는 보도가 다수 취급됨. 이에 농가에서는 비축수매를 요구하고 있고, 당국에서는 출하 자제를 당부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V. 이 달의 집중분석: 마늘

I. SG 발동의 효과

1. SG의 발동 경과와 내용

- 신선마늘과 냉동·초산조제 마늘 수입 급증으로 산업피해구제조치 신청 ('99. 9. 30)
- SG 잠정조치 발동: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 수입에 285% 긴급관세 부과('99. 11. 18)
- SG 본조치 발동: 3년간(2000.6.1~2003.5.31) 깐마늘,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에 대해 긴급관세 부과
- 한·중 마늘협상: SG 발동기간 5개월 단축, 2000년부터 3년간 냉동·초산조제마늘 TRQ 설정(2000. 8. 2)

표 1. SG 발동과 한·중 협상에 의한 긴급관세 부과 및 TRQ 설정

	2000년		2001년		2002년	
	기본관세	긴급관세	기본관세	긴급관세	기본관세	긴급관세
깐마늘	376% 1,880원	60% 300원	372% 1,860원	58% 288원	368% 1,840원	56% 276원
냉동·초산조제마늘	30%	285% 1,707원	30%	274% 1,639원	30%	263% 1,573원
TRQ물량(톤)	20,105		21,190		22,267	

2. SG 발동 전후 마늘수급 상황

1) 마늘 수입량

- 연도별: ('99) 44,704톤 ➡ ('00) 23,234톤 ➡ ('01) 26,476톤 급감
- 용도별
 - 신선·냉장마늘: ('99) 14,355톤 ➡ ('00) 320톤 ➡ ('01) 12,618톤(전량 MMA)
 - 냉동·초산조제마늘: ('00) 8,187톤 ➡ ('01) 13,727톤
 - 건조마늘: ('00) 14,727톤(이중 MMA 11,895톤) ➡ ('01) 131톤

표 2. 마늘 수입실적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MMA 수입량 (기준량)	9,966 (9,966)	10,609 (10,609)	4,100 (11,252)	11,895 (11,895)	12,538 (12,538)	- (13,181)
TRQ 수입량 (기준량)	-	-	-	8,187 (20,105)	13,727 (21,190)	7,624 (22,267)
민간수입량						
신선·냉장마늘	2,973	15,024	10,255	320	80	-
냉동마늘	4,710	9,744	23,247	4,769	9,790	6,010
초산조제마늘	2,042	2,684	4,539	3,418	3,937	1,614
건조마늘	192	1,685	2,563	2,832	131	122
계	19,884	39,747	44,704	23,234	26,476	7,746

주 1) 2002년은 6월까지 실적, 2) 냉동초산조제마늘, 건조마늘은 신선마늘로 환산
 3) 2000~02년 TRQ 수입량은 냉동·초산조제마늘로 민간수입에 포함.

2) 국내 생산 및 공급량

- 1999~2000년산 생산량은 1998년보다 20% 이상 증가. 2001년산 생산량은 국내가격 하락으로 전년대비 14% 감소
- 연간 공급량은 1999년산 511천톤에서 2001년산 448천톤으로 12.3% 감소
- 국내 소비량 중 수입산 점유율은 1996년산 3.3%에서 1998년산 12.3%로 상승, SG 발동으로 2001년산은 6.3%로 하락

표 3. 마늘 수급동향(연산기준¹⁾)

단위: 천톤

연산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재배면적(ha)	41,973	36,292	37,337	42,416	44,941	37,118	
공급(톤)	국내생산	456.0	393.9	393.9	483.8	474.4	406.4
	MMA ²⁾ (A)	9.6	10.0	10.5	2.2	11.9	12.5
	민간수입(B)	5.3	11.3	44.7	22.9	15.0	14.0
	전년이월	10.0	12.0	3.0	2.0	3.0	14.7
	소계	480.9	427.2	452.1	510.9	504.3	447.6
수요(톤)	국내소비(C)	456.1	422.9	449.6	507.7	483.7	420.5
	수출	12.8	1.3	0.5	0.2	5.9	21.1
	차년이월	12.0	3.0	0.2	3.0	14.7	6.0
	소계	480.9	427.2	452.1	510.9	504.3	447.6
수입의존도(A+B)/C, %	3.3	5.0	12.3	4.9	5.6	6.3	

주 1) 연산은 5월~익년 4월, 2) MMA 물량은 신선·냉장마늘과 건조마늘 포함,

3) 수출입량은 신선냉장마늘로 환산한 물량임.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관세청 'KOTIS'.

3. SG 발동 전후 마늘 가격

- 1998~99년 국산 깐마늘 上品 도매가격은 중국산보다 40% 이상 높았고, 깐마늘 下品 도매가격은 중국산 냉동·초산조제마늘의 국내도매원가보다 3배정도 높았음.
⇒ 중국산 마늘 수입이 40,000톤 내외로 급격히 증가
- 2000년 이후에는 깐마늘 긴급관세 부과와 TRQ 물량에 대한 중국의 수출원가 상승(수출부담금, 최저가격제)
⇒ 중국산 마늘 수입이 23,000~27,000톤으로 감소

표 4. 국내산과 수입산 마늘의 가격비교

단위: 원/kg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국 산	한지	2,477	4,270	5,019	3,617	2,478	2,998	3,633	
	난지	신선	1,286	2,087	3,124	2,130	1,532	1,601	2,256
		깐마늘상품	-	-	4,971	3,649	2,674	2,757	3,547
		깐마늘하품	-	-	4,080	2,867	1,922	2,037	3,012
수 입	신선냉장	4,746	3,229	3,136	2,772	2,757	-	-	
	냉동	1,002	1,115	1,275	1,009	1,582	1,418	1,318	
	초산	766	818	1,118	923	1,375	1,418	1,320	

주: 1. 수입산 마늘가격은 민간이 수입한 품목별 수입액을 수입량으로 나눈 수입단가에 통관비용, 수입상이윤, 내륙운송비, 위탁판매수수료를 합한 수입품의 도매원가임.

2. 2002년 가격은 7월까지의 평균임.

3. 1999년 이전의 신선냉장마늘의 수입물량이 통마늘과 깐마늘로 구분되지 않아 깐마늘로 가정하여 수입가격을 추정함.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관세청.

II. 마늘의 유통 및 소비실태

1. 국산 마늘의 유통 및 소비 실태

- 국산 한지형(생산량의 15%)은 난지형보다 품질이 우수해 전량이 통마늘로 유통됨. 대부분의 물량은 실수요처인 가정, 요식업소에서 직접 탈피하여 생마늘, 다대기, 장아찌로 사용
- 국산 난지형(생산량의 85%)은 주로 깎마늘로 거래됨(약 80%).
 - 깎마늘 상·중품과 하품 일부는 가정·요식업소에 생마늘로 공급
 - 하품의 대부분과 등외품은 도매상, 중간도매상(앞자리상), 소매점에서 다대기로 갈아 가정, 요식업소, 가공업체에 판매

2. 중국산 마늘의 유통 및 소비 실태

- 중국산 마늘은 신선냉장마늘(통마늘, 깎마늘), 냉동마늘(깎마늘 냉동 90%, 다진마늘 냉동 10% 정도),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로 수입
- 통마늘: 국내 수입업자 ➡ 도매시장 도매상 ➡ 깎마늘공장(탈피) ➡ 가정, 요식업소에서 생마늘 형태로 소비
- 깎마늘: 국내 수입업자에서 도매시장 도매상에 판매·유통, 또는 요식업소, 대형소매점 등 실수요처에 직공급
- 냉동마늘
 - 깎마늘 상태로 냉동 수입되어 다진마늘로 요식업소, 가공업체에 공급(90%)
 - 다진마늘 상태로 캔 또는 1kg씩 소포장 냉동 수입되어 요식업소, 가공업체에서 소비(10%)
- 건조마늘
 - 원형, 슬라이스형, 분말형으로 건조처리되어, 라면스프, 카레소스 등의 원료로 사용.

- 현재 일부 대형식품업체에서는 중국에 원료가공공장을 운영하여 직접 혼합스프를 제조하여 수입
 - 건조마늘의 일부는 수입후 다시 물에 불려 국산 등외품, 수입 냉동품 과 혼합되어 다대기로 이용
- 초산조제마늘: 초산처리되어 수입되기 때문에 국내의 가공업체에서 장아찌용으로만 한정 사용

< 식품가공업체의 수입마늘 사용 실태 >

1. 다대기

1) 김치공장

- 김치 원료의 1~1.5% 마늘 사용
- 김치는 맛을 중시하므로 농협 김치공장과 민간의 유명 김치공장에서는 국산마늘 중품 이상을 다대기 형태로 사용
- 영세 김치제조업체에서는 중국산 냉동마늘 다대기와 국산 깬마늘 하품 또는 등외품을 혼합(국산:수입산=7:3 또는 5:5)하여 주로 사용

2) 냉동만두업체: 100% 중국산 냉동 다대기를 사용

3) 양념치킨업체: 치킨소스용으로 중국산 냉동마늘 다대기를 주로 사용

4) 참치 등 가공캔업체: 100%를 수입 냉동마늘 사용

5) 단체급식업체: 100%를 수입 냉동마늘 사용

6) 찜장 가공업체: 수입냉동마늘은 해동후 수분이 많아 주로 국산 등외품 다대기를 사용

7) 불고기, 갈비업체: 수입냉동마늘 주로 사용, 고급품은 국산 마늘 사용

2. 건조양념: 라면, 국수용 스프 제조업체

- 분말 스프의 경우 거의 100% 수입 건조마늘 사용
- 액상 스프의 경우 엑기스를 추출, 수입하여 사용

3. 초산조제마늘: 장아찌 가공업체

- 국내 소비의 90%를 수입 초산조제마늘로 사용

3. 마늘 실수요처별 용도별 소비량 추정

○ 마늘의 실수요처별 소비량 비율(추정): 가정 40%, 요식업소 45%, 가공업체 15%

- 요식업소는 다대기와 통마늘 및 깬마늘로 구입하며, 찌개 및 국거리용 조미료, 김장용 다대기로 이용하며, 생마늘은 찜용, 구이용으로도 사용
- 가공업체는 다대기, 건조양념, 장아찌 형태로 가공원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다대기는 김치, 냉동만두 제조원료, 양념과 찜장 원료로 이용함. 건조양념은 라면과 국수 스프용, 카레소스 원료 등으로 이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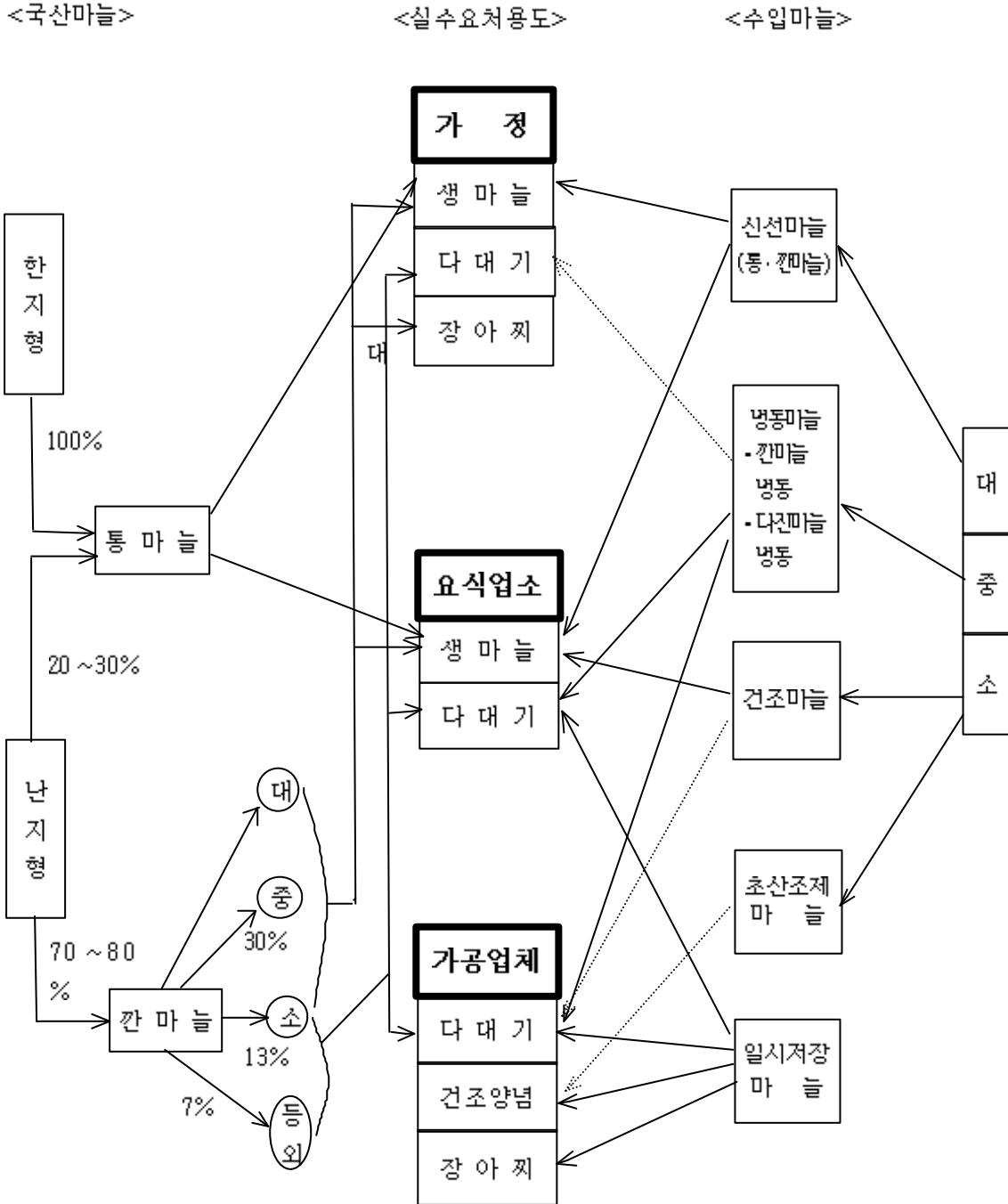
표 5. 마늘 실수요처별 용도별 사용량 추정 (2001년산 기준)

단위: 만톤

	가정	요식업소	가공업체	계
생마늘	0.4	7.9	-	8.3 (25.2%)
다대기	12.1	7.0	4.0	23.1 (70.0%)
장아찌	0.7	-	0.4	1.1 (3.3%)
건조마늘	-	-	0.5	0.5 (1.5%)
계	13.2 (40%)	14.9 (45%)	4.9 (15%)	33.0 (100%) ¹⁾

주 1) 2001년산 마늘 총공급량 447만톤에서 수출량, 종자용, 차년이월을 제한 물량임.

그림 1. 국산 및 수입마늘의 실수요처 용도



4. 수입마늘과 국산마늘의 소비대체성

1) 신선냉장마늘 (통마늘, 깎마늘)

- 중국산 上品이 주로 수입되어 가정 및 요식업소용 생마늘과 밀접한 대체관계
- 국산과 품질가격차는 300~400원 정도로 조사됨.

2) 냉동마늘

- 중국산 中品이 급속냉동 후 수입되어 다대기로 사용되며, 국산 하품 및 등외품과 대체, 가격은 국산 등외품보다 낮음.
- 가공업체 건조양념, 장아찌용과 대체될 수는 있으나, 가공업체 건조양념과 장아찌는 중국산 下品이 이용되기 때문에 대체가능성 적음.
- 가정용, 요식업소용 생마늘과는 대체 불가능하며, 국산 상·중품을 이용하는 가정용 다대기와도 대체가 어려움.
 - 현재 다대기 가공업체에서는 국산 하품과 등외품을 전량 사용
- 소비대체 가능량 추정(최대)
 - 가공업체 가공원료 : 4만톤중 70~80%인 2.8~3.2만톤
 - 요식업소 양념용 다대기 : 7만톤중 30~40%인 2.1~2.8만톤

3) 초산조제마늘

- 수입품이 국내 가공업체 장아찌용 수요(4,000톤)의 100% 점유
- 마늘 장아찌 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추가적인 수입수요가 없을 것으로 전망

4) 건조마늘

- 수입 건조마늘은 국내 건조양념 소비처인 라면·국수용 스프와 카레소스용으로 100% 사용

-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 증가 전망
- 일부 건조마늘은 물에 불려 냉동마늘, 국산 하품 및 등외품과 혼합하여 다대기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극히 일부에 국한될 전망

표 6 . 수입마늘과 국산마늘의 대체 정도

국산 수입산	가정용			요식업소용		가공업체용		
	생마늘	다대기	장아찌	생마늘	다대기	다대기	건조양념	장아찌
신선냉장	★	◎	◎	★	◎	◎	◎	◎
냉동	×	△	×	×	◎	★	△	×
초산조제	×	×	○	×	×	×	△	★
건조	×	×	×	×	×	△	★	×
일시저장	×	×	×	×	○	○	○	○

범례: ★ 상당한 대체 ◎ 대체 용이 ○ 부분 대체 △ 대체 가능하나 실제 희박
×대체불가능

표 7 . 다대기 소비량 중 수입산 냉동마늘의 대체 가능 물량 추정

단위: 만톤

	총소비량	국산	수입산
가정용	12.1	12.0	0.1
요식업소용	7.0	4.2~4.9 (60~70%)	2.1~2.8 (30~40%)
가공업체용	4.0	0.8~1.2 (20~30%)	2.8~3.2 (70~80%)
계	23.1	17.0~18.1	6.0~7.1

주: ()은 실수요처별 총소비량 중 국산과 수입산의 비율임.

III. SG 해제의 영향(2003년 이후)

1. SG 해제의 내용

- 신선마늘·건조마늘: ('03) 종가세 364%, 종량세 1,820원/kg → ('04) 종가세 360%, 종량세 1,800원/kg
- 깎마늘: 긴급관세(종가세 56%, 종량세 176원) 폐지, 2003년 이후 신선마늘과 같은 관세율 적용
- 냉동·초산조제마늘: TRQ 초과물량에 적용되는 긴급관세가 없어지고 기본관세만 부과

표 8. SG 해제 전후 마늘의 관세 및 쿼터량

	2002		2003		2004	
	종가세 (%)	종량세 (원/kg)	종가세 (%)	종량세 (원/kg)	종가세 (%)	종량세 (원/kg)
신선마늘	368.0	1,840	364.0	1,820	360.0	1,800
깎마늘	368+56	1,840+176	364.0	1,820	360.0	1,800
냉동마늘	30+263	1,573	27.8		27.0	
초산조제마늘	30+263	1,573	30.0		30.0	
MMA(관세율)	13,181톤(50%)		13,824톤(50%)		14,467톤(50%)	
TRQ(관세율)	22,267톤(30%)		-		-	

- MMA 수입량(관세 50%): ('03) 13,824톤, ('04) 14,467톤
- TRQ 수입량: '03년 이후 TRQ 물량 없음.
- SG 해제시, 냉동·초산조제마늘 수출에 부과되던 쿼터비와 최저가격제도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
- ➔ 2003년 이후 중국산 냉동·초산조제마늘의 수입단가는 SG 이전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

※ 현행 TRQ 관리방법

- TRQ 물량은 중국정부(토축산진출구)가 수출업자들에게 입찰
- 수출업체가 중국정부에 지불하는 쿼터비는 협의입찰시 \$48/톤, 경쟁입찰시 \$100~200/톤 수준
- 중국정부는 TRQ 물량에 대해 \$610/톤의 최저가격제 실시

2. 2003년 수입마늘 가격 시나리오별 수입가능량 추정

○ SG 해제시 중국산 마늘 수출가격 예상(시나리오)

		수출가격 (\$/톤, FOB 가격)	국내도매원가 (원/kg)
시나리오 I	신선마늘	350	2,596
	깎마늘	450	3,019
	냉동마늘	450	1,058
	초산조제마늘	440	989
시나리오 II	신선마늘	300	2,526
	깎마늘	400	2,727
	냉동마늘	400	971
	초산조제마늘	390	900

시나리오 I: 쿼터비와 최저가격제도의 철폐로 수출가격이 SG 이전수준으로 복귀

시나리오 II: 중국 산지가격 하락으로 SG 이전보다 하락

○ 신선마늘

- 중국산 국내도매원가: kg당 2,530~2,600원으로 추정
- 2000~02년도 국내산 난지형 상품 kg당 평균도매가격이 1,500~2,140원 수준이고, 단경기 가격(1~4월 평균)도 1,540~2,500원이므로 중국산 신선마늘의 수입은 없을 것으로 전망

○ 깎마늘

- 중국산 국내도매원가: kg당 2,730~3,020원으로 추정

- 국산 깐마늘 상품 kg당 평균도매가격은 2000년 2,700원, 2001년 2,760원이었으나, 최근 국내 마늘생산량 감소로 2002.1~8월 가격은 3,400원임. 따라서 긴급관세가 해제되는 2003.1월 이후에는 중국산 깐마늘의 가격경쟁력이 높아 수입 가능성이 높음.

○ 냉동·초산조제마늘

- 중국산 국내도매원가: kg당 900~1,060원으로 추정
- 중국산 초산조제마늘이 국내 장아찌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수입급증은 없을 것으로 예상
 - ➔ 최대 4,000톤 수입 예상
- 중국산 냉동마늘은 소비대체관계에 있는 국산 깐마늘 하품과 등외품 가격보다 크게 낮아져 2003년 이후 수입 증가 가능성이 있음.
 - ➔ 2003년도 수입가능량은 가공업체용으로 1만 4천~1만 6천톤, 요식업소의 다대기용으로 1만톤 내외 전망

○ 건조마늘

- 중국산 건조마늘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00% 수준이므로 2003년 이후 수입 증가 가능성 없음.
 - ➔ 최대 수입가능물량 5천톤 내외 예상

3. 2002~03년산 마늘 공급량과 수입량 전망

1) 2002년산

- 생산량: 394,482톤
- 수입량
 - MMA 물량: 13,181톤

- TRQ 물량: 22,267톤중 2002.5~12월까지 1만여톤 수입 전망, 미수입분 1만 2천톤은 제3국 수출 계획
- 2003.1~4월 냉동마늘 9천~1만톤, 초산조제마늘 1,300톤 내외 수입 전망

○ 공급량

- 생산량 394,482톤, 수입량 33,481~34,481톤, 2001년산 이월량 6천톤을 합한 433~434천톤으로 전년대비 3% 감소 추정

○ 가격

- 2002년산 마늘의 국내 연평균가격은 2001년산보다 약 7% 높은 난지형 상품 kg당 1,860원 내외 추정
- 국산 깐마늘 가격은 3,000~3,350원 추정(통마늘과 깐마늘의 가격차 1.6~1.8배 감안)

➔ 단경기에 중국산 깐마늘의 수입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 2003년산

○ 생산량

- 재배면적은 2002년산보다 약 5% 감소한 31,500ha 내외 전망(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배의향조사결과 작년대비 3% 감소, KREI 농업관측정보센터의 재배의향조사결과 7% 감소).
- 생산량은 주아재배면적의 확산에 따른 단수증가로 38만 2천톤 내외 추정

○ 공급량

- 생산량과 MMA 물량 13,824톤, 중국산 냉동·초산조제마늘의 평년수입량을 고려한 2003년산 마늘의 국내공급량은 41~42만톤 내외로 2002년산보다 약 4% 적을 전망

○ 가격

- 42만톤 공급시, 연평균가격은 상품 kg당 2,000원 내외로 상승하고, 깬마늘 가격은 3,200~3,600원으로 전망됨.
- 중국산 깬마늘과 냉동마늘의 추가 수입 발생으로 국내 균형가격은 1,750~1,800원 수준으로 하락 전망

➡ 국내 총수요량은 최근 2~3년 간의 주대마늘 소비 감소추세와 김치냉장고의 보급에 따른 소비감소로 연간 43만톤으로 추정됨에 따라, 중국산 깬마늘(5천톤)과 냉동·초산조제마늘(29천톤)의 민간수입량은 2003 유통년도(5월~익년 4월)에 약 34천톤 정도로 예상됨.

○ 국내 마늘 수요량 중 수입마늘의 시장점유율은 2001산 유통년도 6%에서 2003년산 유통년도에 11%로 증가 전망

표 9 . 2002~03년산 마늘 수입량 전망

단위: 톤, %

연산	수요량 (A)	생산량 (B)	MMA (C)	민간수입량 (D)	수입마늘점유율 ((C+D)/A)*100	국내가격 (원/kg)
2001	447,600	406,385	12,538	14,013	5.9	1,740
2002	433,500	394,500	13,181	20,819	7.8	1,860
2003	430,000	381,700	13,824	34,476 (깬마늘 5,000) (냉동초산 29,476)	11.2	1,750~1,800

IV. 정책 제안

1. 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품질향상을 위한 주아재배 보급 확산

- 현재 의성군, 신안군 등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10% 정도 보급된 주아재배를 전국의 주산지에 신속 확대 보급 (주아재배 교육 확대, 주아재배 우량씨마늘 생산비 지원 등)
- 효과 : 단수 30% 증가로 kg당 생산비 30% 절감

2. 노동력, 인건비 절감을 위한 파종, 수확기 개발, 보급 강화

- 현재 파종기 이용 1.5%, 수확기 이용 15% 등 수작업 위주의 농작업의 기계화 추진으로 노동력, 인건비의 대폭 절감
 - 마늘 생산비중 노력비 비중 44.6%, 쪽분리, 파종, 수확, 선별작업시간이 전체 작업시간 59~64% 차지
- 현재 개발된 파종·수확기의 보급 지원, 저렴·간편·고정밀도·포장여건이 적합한 기계 개발 집중 지원
- 효과: 생력화 기계 도입으로 노력비 25%(난지형 기준) 절감, 생산비는 11.1% 절감 가능

3. 마늘 농가의 규모화 유도

- 영세한 마늘 농가의 규모화로 생산규모의 경제성, 생산비 절감, 기계화 유도
- 기계화 지원 등 지원사업을 주산지 중심으로 추진, 최저보장가격 수준 결정시 1,000평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비 산출, 이용
- 효과: 중국산 마늘의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이 인하되어도 효율적인 농가의 소득 유지

4. 마늘 수확후 상품화시설 설치 지원

- 건조시설 설치 지원
 - 건가시설 이외에 고추 열풍건조기를 개조한 마늘 건조시설 설치 지원

- 마늘 주산지의 산지포장센터 지원
 - 산지포장센터 중심으로 생산계열화(농가와 산지포장센터 경영체간 유통협약)를 유도하여 통마늘, 깎마늘 상품화, 브랜드화 추진

5. 마늘 포장 유통 유도

- 브랜드, 원산지표기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유통되는 국산 마늘의 포장화, 브랜드화 유도로 품질, 산지, 품종간 차별화
 - 현재 통마늘은 비포장 유통, 깎마늘은 5관(19kg), 1관(3.75kg) 단위로 유통
- 한지형, 지역 단위로 통마늘 포장, 브랜드 출하 유도, 깎마늘·다대기 포장단위 개발, 브랜드 유통 유도
- 효과: 중국산 마늘과 상품 및 유통 차별화

6. 협동조합 중심의 생산 및 출하조절 실시

- 협동조합 중심으로 적정 생산 및 출하조절체제를 구축하여 국산마늘의 가격안정 유도
- 효과: 생산 및 출하조절을 통해 국산마늘의 적정가격을 유지하여 중국산 신선마늘의 민간수입 억제

7. 국산마늘 가공제품 개발 및 소비홍보

- 국산마늘 가공제품(기능성제품) 연구개발 강화와 소비홍보로 안정 소비 유도

8. 원산지표시제 강화

- 국산 및 수입마늘의 원산지표시 강화로 특히, 국산마늘과 중국산 냉동마늘의 혼합다대기 민간유통(요식업소, 가정용) 억제

V. 이 달의 집중분석: 배

I. 수급 및 가격 동향

□ 공급증가, 수요정체

- '80년대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공급량이 11%씩 늘면서도 가격도 14%씩 상승함.
- '90년대 전반에도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으나, '90년대 후반에는 공급량이 13%씩 늘어나 가격이 △5.4%로 하락세로 전환됨. 이는 수요가 정체되고 있음을 의미.

<연평균 공급량·소득 및 도매가격 변화율>

(단위 : %)

	1인당 공급량	1인당 실질소득	실질도매가격
'84~'90	11.2	7.9	14.4
'90~'95	-2.5	6.2	13.3
'95~'01	12.9	3.7	-5.4

□ 가격하락과 소득감소

- 도매가격은 '96년을 정점으로 이후 연평균 8%씩 하락하여, '01년산 가격은 '95~'96년산보다 30% 낮은 수준
 - ('95~'96평균) 35,794원/상품15kg → ('00~'01평균) 24,648
- '96년 이후 경영비는 연평균 5%씩 상승하여, '01년 소득은 '96년보다 40% 낮은 10a당 186만원 수준
 - 10a당 소득 : ('96) 3,104천원 → ('01) 1,862

□ 생산과잉속 추석공급 부족

- '97~'01년 연도 반입량 증가율에 비해 9월 반입량 증가율이 훨씬 컸으나, 가격하락률은 9월보다 연도쪽이 큼. 이는 추석용 배 수요가 큼을 의미함.

<9월과 연도 반입량 증감률 및 가격 등락률 비교>

	반입량	가격
'97-'01 연도평균	7.2	-3.7
'97-'01 9월평균	28.8	-1.5

- 주품종인 신고의 생산량은 과잉이지만 조생종인 원황의 수요는 커 원황가격은 신고의 1.2~2.6배, 장십량의 2.3~3.3배 수준

<배 품종간 도매가격 비교>

단위: 원/15kg

연 산	신고	원황	장십량
2000	24,705 (100.0)	64,250 (260.1)	19,639 (79.5)
2001	24,591 (100.0)	28,817 (117.2)	12,643 (51.4)
2002(9월)	20,130 (100.0)	38,042 (18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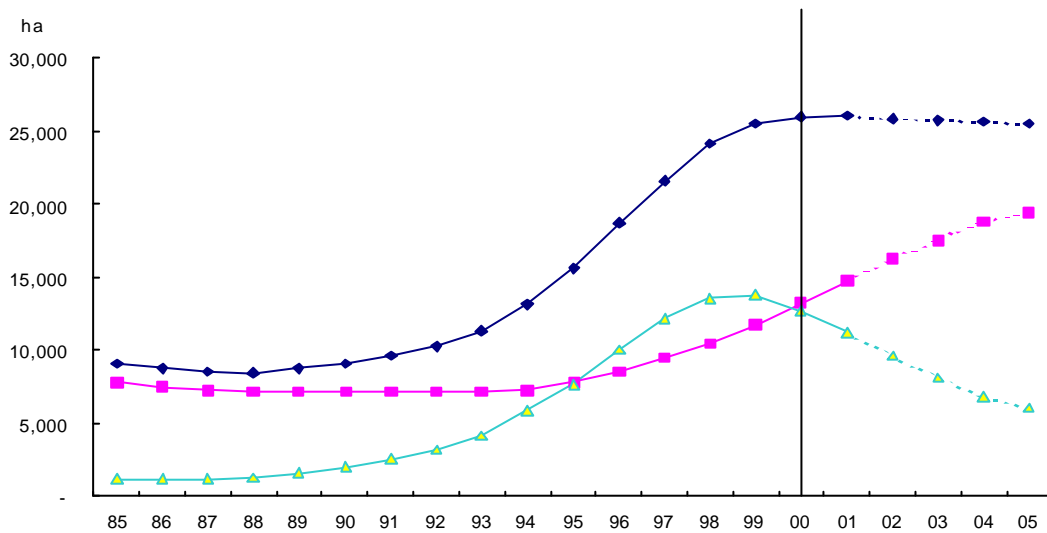
□ 품질별 가격은 3배까지 차별화

- 2001년산 배의 품질간 가격차는 2~3배 수준
 - 신고(하품 대비) : 특품 3.0배, 상품 2.2, 중품 1.6
- 품질간 수요 격차 확대로 가격차도 확대
 - 상품/중품 가격비율 : ('95~'98평균) 1.28 → ('99~'01평균) 1.40

II. 배 수급 및 가격전망

□ 성목면적과 생산량 증가 추세

- 재배면적은 '90년대에 급속히 증가, 재배면적과 성목면적이 '95년 ~ '01년간 각각 연평균 9%, 12%씩 증가
- '90년대 후반 성목면적이 급격히 증가, 생산량도 연평균 16%씩 증가



<배 생산 동향>

	단 위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95~'01평균 증감율(%)
재배면적	천ha	9.1	15.8	22.0	24.6	25.7	26.2	25.5	8.6
성목면적 (성목비율)	천ha %	7.1 (78.0)	7.6 (48.1)	9.5 (43.2)	10.2 (41.5)	11.7 (45.5)	13.3 (50.8)	14.8 (58.0)	11.8
성목단수	kg/10a	2,276	2,346	2,739	2,547	2,215	2,430	2,822	3.7
생 산 량	천톤	159.3	178.3	260.2	259.8	259.1	323.6	417.2	15.8

자료: 농림부, 「작물통계」 및 「주요작물 생산동향」, 각연도

1. 올해산 전망

- 올해산 생산량은 41만톤 전망
- 성목면적은 16%(2,320ha) 늘어난 1만 7,110ha이며 단수는 태풍피해로 15%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1만톤) 적은 41만톤 전망.

<생산 전망>

	단위	2001년	2002년	지난해대비
재배면적 (성목면적)	ha	25,535 (14,782)	25,400 (17,110)	-1.0% (16.0%)
생산량	천톤	417	409	-1.9%

- 10월 이후 가격 하락 예상
- 9월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여 10월 이후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8% 많은 30만톤으로 전망되며, 품질은 지난해보다 나쁠 것으로 나타남.
-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품질이 좋지 않아, 수출이 증가해도 10월 이후 배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을 전망.
 - 대만 수출 증가로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18% 많은 1만 9천톤 전망.

<공급량 추정>

		생산량 (A)	9월 공급량(B)	수출량 (C)	10월 이후 공급량(A-B-C)
공급량 (천톤)	2001년산	417	125	162	276
	2002년산	409	92	191	238
2002/2001 증감률(%)		-1.9	-26.3	17.8	8.1

<지난해대비 품질 수준>

		단위: %		
	좋음	비슷	나쁨	
크기	34.0	35.0	31.0	
모양	16.0	17.0	67.0	
당도	3.0	30.0	67.0	

- 농가소득은 20% 내외 감소 예상
 - 배 가격이 지난해보다 10% 하락할 경우, 농가수취비율과 경영비가 지난해와 같다면 소득은 20% 내외 감소하여 10a당 150만원을 밑돌 전망.

- 미국 오렌지 풍작으로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
 - 캘리포니아 오렌지 생육이 좋아 2002/03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8% (20만톤) 늘어난 136만톤 수준이 될 전망. 미국 오렌지의 풍작과 환율 및 관세율 하락이 예상되므로, 11월 이후 오렌지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20%(2만톤) 이상 늘어날 전망.

<미국 네블 오렌지 생산전망>

	수확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천톤)
2000년산	51,799	2,366	1,226
2001년산	51,799	2,235	1,158
2002년산	51,597	2,640	1,362
02/01 증감률(%)	-0.4	18.1	17.6

단위: ha, kg/10a, 천톤

- 1~5월 과일 유통량중 오렌지가 10%를 차지하므로, 이 시기 오렌지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는 품질이 나쁜 올해산 국내저장과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중기 전망

- 2005년까지 성목면적과 생산량 증가세 지속
 - 최근 급격한 가격하락과 신규과원조성에 대한 지원중단으로 재배면적은 지난해부터 감소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나, 성목면적이 계속 늘면서 생산량도 연평균 4.4%씩 계속 늘어나 2004~05년 생산량은 47만톤 수준이 될 전망.

<중기 생산 전망>

	단 위	2001	전 망		
			2002	2005	'02~'05 평균증감율(%)
재배면적	천ha	25.5	25.4	24.8	-0.7
성목면적 (성목비율)	천ha (%)	14.8 (57.8)	17.1 (67.5)	18.5 (74.5)	2.7
성목단수	kg/10a	2,822	2,392	2,511	1.7
생 산 량	천톤	417	409	465	4.4

□ 향후 수년간 추석 수요는 여전히 클 듯

○ 연간 반입량중 9월 반입비중이 18~30%정도로 수요가 크지만 원황 등 조생종 재배면적 비중은 아직 2% 정도에 불과, 향후 수년간 추석공급 부족이 지속될 전망.

- 원황 재배면적 : ('97) 178ha → ('02) 489

□ 수출 증가 추세

○ 수출량은 '95년 이후 연평균 28%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 수출량은 전년보다 31% 증가한 1만 1,455톤임.

- 수출량 : ('95) 2,790톤 → ('98) 3,942 → ('01) 11,455

○ 대만의 WTO 가입으로 1997년 이후 중단되었던 대만으로의 수출이 재개됨으로써 수출 증대 기대.

IV. 정책 과제

□ 출하조절 및 수요촉진 대책 수립

○ 배 공급이 11월~익년3월에 집중될 전망이며 품질이 좋지 않아 이 시기 가격 하락이 우려됨(1월 구정전 제외). 같은 시기에 오렌지 수입량도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할 전망이므로, 출하 시기가 분산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필요.

- 지난해 12월~익년3월 가격이 높았던 것은 추석 출하 증가, 11~12월

정부수매, 그리고 월드컵을 대비한 저장량 증가 때문.

- 오렌지 등 외국산 과일의 수입에 대한 관찰 및 검역 강화
- 가공·수출수요를 창출하고 국내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 대만, 홍콩 등 고성장 국가와 미국·캐나다, 일본 등 고소득 국가 중심으로 수출 증대 노력 지속
 - 배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 소비 방안 강구

□ 폐원 및 과원구조개선 대책 추진

- 배 재배면적은 감소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나 향후 3~4년간은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적지나 노령화된 과원에 대한 폐원 대책 추진
- Y자형 재배 및 간벌 지원

□ 경쟁력 있는 전업농 육성

- '경영이양제도' 도입
- 정책대상농가를 0.5ha 이상, 1ha 이상 등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이동
 - 경지구모별 농가 비율('00년) : 0.5ha 미만 67.6%, 0.5~1.0ha 20.2%
- 재해보험제도의 정착

□ 품종 다양화로 수요 창출 및 노동력 분산

- 신품종 개발과 품종 갱신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서도 노동력 집중 현상을 완화
 - 현행 품종 비율('02년 추정) : 원황(조생) 2%, 신고(중만생) 79%

□ 유통 개선과 소비자 교육·홍보

- 무게 등급 기준의 완화로 표준규격의 현실성 증대
 - 특품 600g 이상 → 575 이상, 상품 500~600g → 450~575
- 공동선별·계산 조직의 적극 지원·육성
 - 품목별 생산자 조직에 의한 조사·홍보 및 자조금 제도 활성화

< 부 표 >

<배 품종별 재배면적 추이>

구분		조생종	중만생종			기타	전체
		원황	신고	장십랑	황금배		
면적	'97 (비중)	178 (1.0)	16,332 (73.0)	1,848 (8.0)	540 (2.0)	3,403 (15.0)	22,301 (100.0)
	'02 (비중)	489 (2.0)	19,942 (79.0)	1,299 (5.0)	874 (3.0)	2,792 (11.0)	25,397 (100.0)
증감율'02/'97		175.0	22.0	-30.0	62.0	-18.0	13.9

자료 : 농림부, 「과수편람」, '02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